

있을 수 있으나 전기 충격요법이나 인공호흡을 했을 때도 생길 수 있으며 특별한 치명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과 가슴부위에 피멍이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다는 것. 강본부장은 "정확한 부검 결과와 나오는데로 관계수사관들을 조사해 잘못이 드러나면 임중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고문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의 이같은 발표는 승진 박군을 치음 진료한 중앙대부속 용산병원내과의 오인상교수(32)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져 경찰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했다. 16일 오전 오교수는 기자들에게 14일 오전 11시반경 용산병원응급실에 사복경찰관 2명이 찾아와 신분증을 밝힌 뒤 응급실장에게 "조사중 호흡이 불안정한 피의자가 발생했으니 급히 왕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오교수는 응급실장의 지시로 치료기구를 준비해갔고 당직간호원과 함께 대공분실 직원을 뒤따라 서울용산구 갈림동 세칭 "남영동대공분실"로 갔다. 이때 시간은 14일 오전 11시 45분.

오교수는 도착 즉시 박군의 동공을 살피보고 "심전도 및 호흡상태를 살

현제 유일하게 불치증거로 남아 있는 것은 세체부검시의 세체부위를 촬영한 필리피진 50이징이 고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같은 시연치 못한 조치는 당초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깊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들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이 경찰의 문물 제기하고 언론이 들끓자 경찰은 직접 수사에 나선 뜻을 비쳤다. 정구영 서울지검장은 사건 발생 4일 뒤인 1월 17일 "박군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검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피가 혹행위가 밝혀지면 관련 경찰관 전원 구속하겠다"면서 사체를 부검한 안상수검사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고 시사.

그러나 바로 이날 오후 徐東樞검찰총장이 모처에 다녀온 후 검찰 수사방향은 "직접 독자수사"에서 "간접 지휘수사"로 급선회했다.

한편 강치안본부장은 17일 오후 6시반경, "경찰의 대국민적 신뢰와 명예를 걸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 의욕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17일 오후 3시부터 李康年치안본부 수사부장을

피본 결과 이미 승진 상태였다"며, "그 뒤 기관지에 튜브를 집어넣어 인공호흡을 시키고 충격요법으로 사용되는 켈피주사를 놓고 심장마사지를 약 30분동안이나 계속했으나 박군의 심폐기능은 소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교수는 "진료를 한 것이 아니고 사체검안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부검에 임회한 박군의 삼촌 월길씨도 16일 오전 박군을 화장한 직후 "무엇이 무시위 말못하겠느냐"면서 박군의 사체는 두피를 벗기자 머리 한쪽에 피멍자국이 드러나 보였으며, 이마 뒤통수목 가슴 하복부 사타구니 등에 "70여군데"의 피멍자국이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첫 번째 의혹은 박군사망장소와 사망원인. 경찰의 1차 발표는 "중대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나중에는 유기는 도중 숨졌다고 말했다고 돼 있어 사망장소를 중대부속병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교수는 "남영동" 대공수사 2단 조사실임을 분명히 했다. 사망원인은 마중운급 소체를 물으면서 조사관이 체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을 뿐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진담특별조사방장으로 자체조사에 들었으며, 관린취조경찰관 2명의 신빙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이 현재까지 조사 결과 가혹행위 여부가 드러났는지 묻자 "가혹행위는 진담특별조사만이 조사해야 할 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군이 사망한 지 4일이 지나는데도 치안총수의 답변에서는 가혹행위의 시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정찰관들의 명을 위해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안시 및 부검의사의 소견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가혹행위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문"경찰관들은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 2개 1반장 趙漢慶경위와 姜俊非경사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경찰이 조사, 진상을 철저히 가려 의혹을 풀겠다고 나서자 여론의 눈초리는 더 뜨거워지게 됐다. 심하게 얘기하면 법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범죄사실을 조사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었다.

으나, 사체를 검안한 오교수나 부검한 황 박사, 임회한 박군 삼촌이 이구동성으로 밝힌 박군 사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상은 "모아" 물리적인 힘이 작용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경찰, 계속 발뺌만

이와 같은 경찰발표로 박군사망에 대한 의혹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찰은 "모든 것"을 밝혀 줄 유일한 물적 증거인 박군의 사체를 부검 다음날 오전 서둘러 화장시키버렸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가족들의 동의 없이 화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실사 화장을 요구했다고 해도 두고두고 명성의 소지를 남길 문재이므로 오히려 가족을 설득, 사체를 냉동실에 안치시켰어야 했다는 것이 일반아론이었다.

또 사체를 부검한 황박사가 치안본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어서 그의 양식과 진본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성의 소지는 남는다고 할 수 있다.

「고문경찰관」 접근 철저봉쇄

상치안본부장은 1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자체특별조사단이 박군을 조사한 조한경경위(41)와 강준호(38)를 함부로 사냥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사망일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치안본부가 발표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위와 강경사는 박군이 서울대민추위사진 주요수매자인 박중운군의 소체를 알고 있음이 확실함에도 진술을 거부하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위협수단으로 대공수사 2단 5층 9호 조사실에서 박군의 미리를 육조물 에 한차례 잠시 집어 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다시 미리를 육조물에 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부위가 육조터(높이 50cm 너비 6cm)에 눌러 질식사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원인은 對面한하여 의한 질식사. 사망시간은 14일 오전 11시 20분경. 북부패만은 조사관의 인공호흡

과 초진의사의 호흡기주입으로 인해 공기가 위장에 들어가 생긴 일시적인 상임. 폐조직검사 결과 수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肺氣空虛상은 과거 폐결핵 병력에 의한 폐손상 흔적임. 원손부위와 머리부위의 타박상은 인행 과정에서 저항으로 생긴 부상임. 부검내용중 정부압박 이외의 사항은 박군의 사망원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됨.

치안본부장은 시종 상기된 표정으로 사건경위를 설명하면서 특히 두수사관이 박군의 머리를 유조에 집어넣는 과정을 직접 「實演」해 보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부수사관들의 「지나친 직무의욕」 때문에 빚어졌다」는 말을 어리차레 반복, 부하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치안본부는 수사결과 발표 후 두고문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의사수가 그가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영장이 반려됐다. 검찰이 처음 신청한 영장 내용의 대부분은 고문으로 승진 박군의 하대시위주동 및 수배자에 대한 도의자금제공 등 피의사실 이력 사실배정이었고, 고문경찰관에 대한 혐의사

실은 3, 4줄에 불과. 박군에 대한 영장인지 고문경찰관에 대한 영장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주객이 전도돼 있었다는 후문.

두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치안본부특수수사대 건물에서 있었다. 이 수사대건물은 정문에 「新産業業」이란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평소 열이 높았던 정문을 굳게 닫고 그 주위에 정경과 사물경찰들을 배치, 삼엄한 경계를 뒀다.

두 고문경찰관은 구속영장이 떨어진 19일 밤 서울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취재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19일 밤 9시 40분경 굳게 잠겼던 특수수사대철문이 열리고 고문경찰관 2명을 태운 봉고차와 메스타소형버스 2대가 나오자, 이와 동시에 사복경찰 50여명이 수사대에서 뛰어나와 취재기자들을 밀어내고 사진기자들의 카메라를 끌어내리는 등 파사적으로 취재를 방해했다. 또 호송차를 뒤쫓아가 리는 취재차를 가로막고 기자들의 목덜미를 잡아 끄는 바람에 몇몇 취재차

의 백미러가 깨지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은 이런 취재 방해공작이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엔 대비, 진경 등 20여명에 똑같은 파키복장에 방기지로 머리를 감싸게 해 이들 두 경찰관이 일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했다.

검찰의 합구 원강해

서울지검은 1월20일 이 사건을 송치받아 형사2부 申昌彦부장검사와 안상수 朴商玉검사 하이금 수사관을 진담케 했다. 서울지검 고위관개자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검찰이 그동안 벌인 관련참고인 10여명에 대한 방증 조사내용 및 사체부검결과와의 상충점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유조에 의한 불고문 이외에 박군에 대해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고문의 가혹행위에 대해 혐의를 두는 것은 부검의사와 지휘검사가 박군의 손 가슴 사타구니 등에 시 피멍을 비롯한 10여개의 상처를 화인, 부검기록에 올린 사실이 밝혀졌

기 때문. 검찰은 경찰의 진상발표만으로는 피명과 상치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발표한 박군인행시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명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두 고문경찰관을 밀리 면이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해놓고 이래자인 원강해 출장수사」를 했다.

신정인부장검사 등 수사검사들은 이 사건에 관한 모든 발표는 정구영 서울지검장을 통해서 한다. 이 기자들과의 면담마저 사절했고, 정검사는 계속 「기다리 달라. 앞으로 수사가 완료되면 하나도 숨김없이 발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수사의 진전상황에 대해 합구로 일관했다. 서울지검 모간부가 경찰이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고문가능성이 있다」, 물고문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물고문의 가혹행위 어부를 수사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가 뒤집고 위층으로 부터 심한 주중을 들은 후 어시 합구는 화강했다.

許京萬의원 등 신민당 진상조사단의 의원들은 31일 오후 서울지검 정구영 검사장을 방문, 검찰의 이 사건수사

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비난했다.

검찰의 현황검증도의 혹을 사게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지 4일만인 1월23일 오후 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갈원동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층 9호 조식집에 유체를 부사하고 두 고문경찰관을 잡으시키지 않은채 실태 조사만을 실시, 현황검증을 대신했다. 현황검증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건발생현장에서 범행을 그대로 재입하는 기초준비절차. 그러나 이날 범행현장실황조사는 서울지검 형사2부 신정인부장검사 등 검찰 및 경찰관계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3시간동안 실시됐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조사실의 유조 채상 침상위치 및 상태 등이 두 고문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고문경찰관이 현장 검증을 한 데 대해 「대공수사단 건물 자체가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보안 구역이고, 대공수사요원 등의 사기를 고려, 비공개로 실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경찰관이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다

른 혐의집이 발원되지 않아 이들 없이 조사실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조개나 일반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 사건의 정황수사에 대한 의혹을 풀이해주어야 하는데, 고문경찰관들의 진술이 진실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검찰이 진술을 감싸려 한다는 의혹을 불리 일으키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鄭 검사장과 의 一問一答

경찰은 진상조사에 대비 23일 오전 9시부터 진경 5백여명을 대공수사단 건물 주위에 배치, 건물을 완전봉쇄했다.

서울지검 정구영검사장은 현황검증 다음날인 24일 수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두 고문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박군사체의 외상소견과 부검장서 등을 살펴볼 때 진기고문혐의는 일체 드러나지 않았으며, 가혹행위에 기댄한 경찰관은 구속기소도 2명뿐」이라고 밝혔다.

정검사는 「박군사체에 생긴 15군



11월 20일 박종철군 추모제를 갖는 서울대생들

「진기가 신채부위에 작용하면 그 후위에 屍化현상」 일어나고 주된에 상을 찾아볼 수 있다. 손등에 생긴 상처

무엇을 안 입을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인공호흡을 실시, 자신의 눈 싹핏 줄 이터지기도 했다.

「진기 고문은 하지 않았는가?」
「진기가 신채부위에 작용하면 그 후위에 屍化현상」 일어나고 주된에 상을 찾아볼 수 있다. 손등에 생긴 상처

「관련 경찰들이 사건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은 동요학생 하숙집주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행시간은 아침 6시 40분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숙집주인 임정숙씨가 박군의 하숙방에 가서 박군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6시 50분경이다. 이는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바로 그날 새벽 6시경 관악경찰서 형사가 박군의 하숙집을 다녀갔는데...」
「뒤범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관을 열 명이나 조사했으며 상관들의 고문방조 혐의는」

「박군의 하숙집에 갔던 경찰관 6명과 두 고문경찰관의 직속상관인 유정방경정(5과장)과 박원태경정(2계장) 등 8명을 조사했다. 유정방 등은 사고 당시 3백m 떨어진 별관에 있어

「관련 경찰들이 사건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은 동요학생 하숙집주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행시간은 아침 6시 40분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숙집주인 임정숙씨가 박군의 하숙방에 가서 박군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6시 50분경이다. 이는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바로 그날 새벽 6시경 관악경찰서 형사가 박군의 하숙집을 다녀갔는데...」
「뒤범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관을 열 명이나 조사했으며 상관들의 고문방조 혐의는」

「박군의 하숙집에 갔던 경찰관 6명과 두 고문경찰관의 직속상관인 유정방경정(5과장)과 박원태경정(2계장) 등 8명을 조사했다. 유정방 등은 사고 당시 3백m 떨어진 별관에 있어

「진기가 신채부위에 작용하면 그 후위에 屍化현상」 일어나고 주된에 상을 찾아볼 수 있다. 손등에 생긴 상처

무엇을 안 입을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인공호흡을 실시, 자신의 눈 싹핏 줄 이터지기도 했다.

「진기 고문은 하지 않았는가?」
「진기가 신채부위에 작용하면 그 후위에 屍化현상」 일어나고 주된에 상을 찾아볼 수 있다. 손등에 생긴 상처

「관련 경찰들이 사건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은 동요학생 하숙집주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행시간은 아침 6시 40분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숙집주인 임정숙씨가 박군의 하숙방에 가서 박군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6시 50분경이다. 이는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바로 그날 새벽 6시경 관악경찰서 형사가 박군의 하숙집을 다녀갔는데...」
「뒤범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관을 열 명이나 조사했으며 상관들의 고문방조 혐의는」

「박군의 하숙집에 갔던 경찰관 6명과 두 고문경찰관의 직속상관인 유정방경정(5과장)과 박원태경정(2계장) 등 8명을 조사했다. 유정방 등은 사고 당시 3백m 떨어진 별관에 있어

「관련 경찰들이 사건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은 동요학생 하숙집주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행시간은 아침 6시 40분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숙집주인 임정숙씨가 박군의 하숙방에 가서 박군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6시 50분경이다. 이는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바로 그날 새벽 6시경 관악경찰서 형사가 박군의 하숙집을 다녀갔는데...」
「뒤범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관을 열 명이나 조사했으며 상관들의 고문방조 혐의는」

「박군의 하숙집에 갔던 경찰관 6명과 두 고문경찰관의 직속상관인 유정방경정(5과장)과 박원태경정(2계장) 등 8명을 조사했다. 유정방 등은 사고 당시 3백m 떨어진 별관에 있어

263명

「관련 경찰들이 사건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은 동요학생 하숙집주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행시간은 아침 6시 40분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숙집주인 임정숙씨가 박군의 하숙방에 가서 박군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6시 50분경이다. 이는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바로 그날 새벽 6시경 관악경찰서 형사가 박군의 하숙집을 다녀갔는데...」
「뒤범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관을 열 명이나 조사했으며 상관들의 고문방조 혐의는」

「박군의 하숙집에 갔던 경찰관 6명과 두 고문경찰관의 직속상관인 유정방경정(5과장)과 박원태경정(2계장) 등 8명을 조사했다. 유정방 등은 사고 당시 3백m 떨어진 별관에 있어

「관련 경찰들이 사건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은 동요학생 하숙집주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행시간은 아침 6시 40분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숙집주인 임정숙씨가 박군의 하숙방에 가서 박군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6시 50분경이다. 이는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바로 그날 새벽 6시경 관악경찰서 형사가 박군의 하숙집을 다녀갔는데...」
「뒤범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관을 열 명이나 조사했으며 상관들의 고문방조 혐의는」

「박군의 하숙집에 갔던 경찰관 6명과 두 고문경찰관의 직속상관인 유정방경정(5과장)과 박원태경정(2계장) 등 8명을 조사했다. 유정방 등은 사고 당시 3백m 떨어진 별관에 있어

「관련 경찰들이 사건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은 동요학생 하숙집주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행시간은 아침 6시 40분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숙집주인 임정숙씨가 박군의 하숙방에 가서 박군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6시 50분경이다. 이는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바로 그날 새벽 6시경 관악경찰서 형사가 박군의 하숙집을 다녀갔는데...」
「뒤범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관을 열 명이나 조사했으며 상관들의 고문방조 혐의는」

「박군의 하숙집에 갔던 경찰관 6명과 두 고문경찰관의 직속상관인 유정방경정(5과장)과 박원태경정(2계장) 등 8명을 조사했다. 유정방 등은 사고 당시 3백m 떨어진 별관에 있어

관아경찰서 형사들이 박군의 하숙집에 갔을 때 박군이 없었다고 한 집에 대해 물자 정점사장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군의 언행시간은 박군이 고문당한 시간과 고문에 관련된 경찰관의 숫자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의혹은 상처와 피멍이 생긴 경위의 이것들의 위치와 深度가 엇갈리거나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자체 조사결과 그 타박상은 언행과정에서 지향으로 생긴 부상이라 고 밝힌데 대해, 김찬은 「15군대의 피멍은 육조로 물고 물고 묻히는 과정에서 방향을 억압하다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박군의 타박상이 아침 8시 10분 하숙집에서 인행될 때 지향하다 생겼다는 경찰발표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상처가 생긴 정도면 인행과정중 소란은 필연적으로 있었을 테고, 하숙집주인이나 이웃에서 양았을 것이다. 경찰의 발표대로 인행시간을 앞당기고 상처가 밀실의 수사과정에서 생겼다면 목격자가 한사람도 없는 의혹은 가시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 관아경찰서 형사들이 14일 새벽 6

시경 하숙집에 찾아갔을 때 박군이 집에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되물지 않을 수 없다.

수사관들이나 고문피해자들은 경험상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밀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반항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의혹은 박군이 어떤 자격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경찰은 박군이 내부적으로 C급수배자로 피의자 검참고인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군은 집행유예기간이라서 신중히 행동했고 방학중인데도 부산집에서 올라와 하숙집에 드나들면서 일본어강좌를 듣기 위해 학교에 나가고 있었다.

서울대 민원투의 인문대체으로 여리차레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 박군의 피의사실이지만, 趙경위 등 고문경찰관은 언행화사까지 박군의 피의 사실조사는 손을 대지 않은채 A급수배자 박중운군의 은신처를 대라고 우짜지르다가 사고를 낸 점으로 보아도 박중운군 소재 파악을 위해 참고인으로 불렸으리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이상 기술한 어리가지 편집에서 볼 때 박군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이 사전 직후 취한 조치는 사건을 조작, 은폐를 기도하려 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갖게 했다. 경찰의 시중요한 사건의 초동수사를 「범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 맡기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점, 고문 경찰관들을 송치받은 후 영등포교도소 원정수사를 한 점, 고문경찰관의 참여없이 현장 검증을 한 점 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검찰은 박군사건 수사에 있어 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기보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사건의 축소화」를 꾀한 듯한 느낌을 절게 갖게 했다.

박군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박군사건의 파문은 넓게 퍼져갔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평범한 가정주부가 고통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호느렸다.

「우리 하우 박중철을 살려내라」 방학중인 캠퍼스마다 추위에 도아 땅곳없고 지천로 모여든 같은 또래 젊은이들의 분노에 찬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다.

「우리 아들 종철이를 살려내라」

여성단체 회원들이 영하의 거리에서 외쳐댔다. 고리와 철창 사찰 등에서 추도모임이 잇따랐다. 재야단체에선 성명 발표, 농성, 가두시위를 벌였다. 대한민협은 고문대책공청회를 열어 고문의 진상을 폭로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박군의 생명을 앗아간, 두 고문경찰관에 의해 물고 묻고 당하는 모습이 삽화로 소개된 19일 오후 「동아일보」에 진화를 걸이온 어느 중년부인은 끝내 발끝을 댈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박군고문치사사건이 보도되고 4일 동안 신문사에는 전국 곳곳의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심지어 바다 건너 미국 등지의 교포들로부터 분노와 동곡, 자책과 다짐의 진화와 편지들이 쇄도했다. 어느 가정주부는 박군사건

후 가슴찡기는 고통과 분노로 생환의 리듬마저 잃고 있으며, 「엄마 왜 오빠가 물먹고 죽었어?」하는 다섯살 딸 아이의 물음에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프다는 사연을 전해왔다.

「전 요즘 고문으로 인해 숨진 박중철 오빠가 너무 불쌍해 지절로 눈물이 납니다. 경찰관이 가운 차림이 어떻게 경찰에 조사시킵니까. 검찰당국에서도 고문경찰들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사실을 다하지도 빼지도 말고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어느 이고생이 보내온 편지내용이다. 38세의 한날 「장사치」라고 밝힌 김모씨(서울동대문구송인동)는 「박군관계 신문기사를 보면서 부부가 함께 울이 비렸던 우리들의 아픔을 당신들은 정녕 아는가」 하고 물어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산다는 40대 주부는 「고문으로 죽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신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아 한참동안 눈을 감고 진정시켰다」면서 「나같은로서 고된 일을 어떻게 저지룰 수 있는지 신문을 보는 게 두렵다」고 분노했다.

또 대학생자녀를 두었다는 한 이씨는 「박군의 부모에게 위로편지를 썼다」고 울먹이면서, 그동안 시국이 나 인권관련문제를 남의 일로만 여겼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박군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뜻에서 일가족 5명이 하룻동안 단식하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부산에서 진화를 진다」는 40대 공무원은 「우리 가족 중 한사람도 고문을 당했는데 법정에서 폭로했지만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이 고문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보도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 공무원은 「박군이 죽지 않았다더라면 이처럼 고문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시민은 「박군을 죽게 한 범인은 두 고문경찰관이 기보다 범법인행과 고립무원의 밀실수사」라며 이같은 폐습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한 교포와 군산에 산다는 한 시민은 「왜 고문경찰관들의 맨스런 얼굴을 신문에 신지 않은가. 압력 때문인가, 사진 을 구하지 못해서인가」하고 질책했

다.
시민들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와 정과 결과 발표 내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의혹」을 지켰다. 신문이 하루라도 소홀히(?) 취급한다 싶으면 불호령과 채찍을 내리고, 뵈잖다(?) 싶으면 집하나 뒤통이를 보내 격리했다.

대학생들의 분노와 오열

학생들은 박군의 죽음을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같았다. 학생들은 각 대학 별로 또는 연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군이 사망한 이틀 후 박군이 화장돼 한중 재로 임진강 옛장에 뿌리진 16일 오전, 박군이 다닌 서울대 인이하과 하우들은 밤하중이 드드드도 노이 들었다.

우선 인이하과 사무실에 분향소를 차리고 조의를 표했다. 박군영정을 놓고 영정 앞 제단에 촛불과 과일을 차리 놓았다. 학생들은 박군의 사인 조사를 위해 우선 하과뒤위로 「사망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17일 중간 보고대회를, 20일 오후 2시 교내에서

박군 추모제를 갖기도 했다.

17일 저녁 서울대에 박군 죽음과 관련된 첫大字報가 붙었다. 서울대 인이하과 학생들은 교내 3동 건물 1층 하과사무실 앞 복도벽에 「박종철군의 죽음에 분노한다」가후한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 죽음에 대한 진상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박군에 대한 고문행위를 규탄했다. 학생들은 이 대자보에서 「지난 85년 馬鍾元 학생의 의문의 죽음과 수많은 민주투사들에 대한 잔혹한 고문, 살인행위를 정하고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또 다시 겪으면서 헌정권의 폭력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의 죽음일 수 없으며 민주화운동 진반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인이하과 학생들은 19일 오후 「우리의 입장」이란 두번째 대자보를 통해 「박군의 죽음은 사회의 모순된 구조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 「제2의 박종철군이 생기나지 않게 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주지 않은 채 뉘드리로 사일 수 없

다. 박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주진중운동회를 힘차게 벌이나갈 것」을 촉구했다.

20일 낮 1시 40분 서울대 학생회관 2층 리우지에서 열린 박종철군 추모제는 방학중인데도 1천5백여명의 학생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숙연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이날 박군의 추모제는 제1부 추모제, 제2부 「살인정권타도」를 위한 2만학우 켈기대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제는 인이하과 4학년 張智勳양(22)이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를 낭독하면서 장내를 슬픔의 바다로 만들었다.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차가운 날

한편의 무덤조차 없이
인강 눈바람속으로 날리진
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 남아 우리의 결에
맹목

빼앗긴 청제의 뉘를 앞에 하고
우리는 위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앓아짓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디나 모드가 안고 있다.
나는 밝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 남아 목청터지도록 해
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 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묶인 몸이 될 수 없음을

너를 삼킨 자들이
아직도 구의질나는 삶을 영위해가
고 있는
이 땅이 반도에
지금도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있
는 너 살아
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안지
못한 것
인간 자유 해방
죽어서 꿈꾸며 기다릴 너를 생각하
며
찢어진 가슴으로 내게 약속한다
기것으로 적칠된 이 땅
너의 죽음마저 기것으로 묻히게 할
수는 없다

장양은 격양된 목소리로 조시를 읽
이내려가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호
느낌속에 끝까지 읽이내려갔다. 장양
의 조시낭송은 듣는 이의 가슴을 뒤흔
들었다. 거기까지에서 울부짖는 목소
리로 「죽어선 안된다」를 외치며 구호
가 튀어나왔다.

이이 86년 봄 진방입소교육을 「미
세용방교육」으로 규정, 반대시위를
벌이다 신림동 사거리에서 분신자살
한 金世鎭군(당시 20세, 미생물학과 3년)
의 어머니가 추도사를 읽었다.

「우리는 수많은 종철이를 빼앗겨왔
다. 철아, 우리는 너의 죽음을 모
두 망과하여 왔다. 그 죄들이 재
아 깨닫고 회개한다. 철아, 부릅뜬
두눈감고 고이 잠자거라. 철아, 원
한을 풀어다오. 남은 일은 우리들
의 몫이니까...」

추도사가 계속되자 분노한 분위기
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추모제가 끝난 뒤 학생 2백여명은
박군의 영정을 앞세우고 교내시위를
벌였다. 서울대당국은 추모제에 외부
인사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이날 아침
6시부터 교문을 통제했다.
박군사건의 파문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학으로 번졌다. 많은 대학
에서 분향소설치, 추모제, 교내·가
두시위, 연한시위, 대자보와 유인물
등으로 정화한 사인 규명과 고문규탄,
고문수사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군고문 커시사건과 관련된 서울시
내 대학가의 최초의 시위는 19일 고려
대생들이 벌였다. 고려대생 2백여명
은 이날 낮 1시 40분경 교내 도서관 앞
에 마련된 박종철군의 분향소에 모여
차례로 분향한 뒤 조사를 낭독하고 40
여분간 교내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누가 우리의 친구 종철이
를 죽였는가」라고 집정바탕에 흰색으
로 쓴 플래카드와 「선진조국에 고문
살인 행말이나」라고 쓴 피켓들을 들
고 교문밖 10m까지 진출, 「우리 종철
이를 살리네라」 「살인수사 자행하는
치안본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
치다 경찰제지로 교내로 되돌아왔다.
학생들은 교내도서관 학생회관 앞 등
세곳에 「고박종철열사 신위」라고 쓴
위패를 마련한 분향소와 조위금모금
함을 설치하기도 했다.

박군사건과 관련한 고려대내에서의
두번째 시위는 23일 오후 2시 아학투
서울동부지역 9개대생 7백명의 연

합시위. 최초의 연합시위였다.

고려대 한국국의극이대 진국대 정회 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장신대 서울여 대 동덕여대 등에 학투 동부지역 9개 대생 7백여명은 「종철아! 잘가그래 이.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대이!」라고 쓴 플래카드와 「교문수사 자행하는 치안본부 해체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중 3백여명은 학생회관 3층 시클룸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13개 대학에 분향소 마련돼

연세대 총학생회는 1월 20일 오전 교내도서관 앞에 박군분향소를 설치하고 학생회관 4층에 폭 1m 길이 7m의 검은 만장을 내걸어 조의를 표했다. 많은 학생들이 박군의 영정앞에 분향,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연세대생 3백여명은 21일 오후 1시 교내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 집결한 박군분향소 앞에 검은 천으로 씌운 박군의 「빈칸」을 놓고 추모제를 가졌다.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상복을 차려입은 학생간부 6명이 진행한 추모식이 끝난 뒤 학생들은 분향소에 놓여있는 박군의 영정과 관을 앞세우

고 「우리 학우 박종철을 살려내라」 「살인고문 웬말이나」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교내 백양로를 따라 학교를 한바퀴 돌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진국학생 총연합회 산하 서울 시내 10개 대학생 5백여명은 27일 오후 3시 연세대 도서관 앞에서 「박종철학형교문살해에 대한 범학생 규탄대회」를 가진 뒤 최루탄을 쏘며 교내로 들어온 5백여명의 경찰과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했다.

가두기습시위도 산발적으로 벌어졌다. 서울대 중앙대 등 남부지역평의회 소속 6개 대생 2백여명은 23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앞길에서 시위를 30여분동안 벌였다. 서울대 성관련대 한양대생 등 「진민하련」소속 10개 대생 3백여명은 28일 저녁 7시반정부티 서울성동구 화양동 새종극장앞 삼거리에서 40분동안 기습가두시위를 벌였다.

서울대 성관련대 한양대생 등 학생들은 검문검색을 피해 시장골목 등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기리로 뛰어나와 「처사는 분노를 제헌의회소집투쟁으로」라는 유인물 1천여장을 뿌렸다.

기울이는 게 고작이었다. 20일 추모제가 또 하나의 기록이 되자 많은 학생들이 우러러나미지 하교간부들이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녀들을 침석하지 못하도록 당부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또 추모제 당일 새벽 6시부터 교문을 통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21일 오후 시야사학과 梁秉祐교수가 박군의 분향소를 찾아와 분향하고 학생들을 위로했다. 교수로서는 최초로 분향했다. 서울대 朴奉植총장은 박군 사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죽음앞에선 어떤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죽은 학생이 다니던 대학총장으로서 무이러 할말이 없다」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박총장은 취임후 작년 4월부터 박군사건까지 모두 5차례나 제자들의 「喪」을 겪었는데, 이전까지는 학생들의 죽음에 관해 논평을 회피하고 공개적인 조의 표시를 삼가해왔다. 박총장은 부산 박군집에 조의금을 보내기까지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속이야 어떻든 박군 사망후 10일이 지나도록 일관된 침묵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23

일 오후 3시 5분분 고려대의 李文永(형정학) 李相信(사학) 金忠烈(철학) 權昌殷(철학) 尹溶(신문방송학)교수 등 5명이 서울대 연이하과사무실에 마련된 박군의 분향소를 찾아가 분향,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 이들은 「고려대학교조상교수일동」명의로 된 유인물과 조의금을 전달했다.

「박종철군의 영전에 삼가 분향하면 시우리의 참을수 없는 분노를 무인의 눈물로 조상합니다. 군의 비참한 죽음은 天怒가 되었고, 천노는 인심을 움직여 人怒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한은 살아있는 사람이 풀어주는 법, 이것이 천도요 역사인인데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비장해지기만 합니다. 이제 저일이불은 거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그대의 넋은 萬象과 함께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고려대교수들은 서울대로 분향하러 가기에 앞서 이날 고려대에서 열렸던 9개대생 7백여명이 주최한 박군추모제에 나가 분향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서울대의 교위간부가 고려대의 교무처장에게 전화로 항의했다고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

이들은 「살인정권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쏘는 최루탄에 맞서들과 화염병 1백여개를 던지며 격렬하게 맞섰다.

이밖에도 동국대(21일 4백명) 한양대(21일 2백명) 단국대(21일 1백명) 이화여대(24일 1백50명) 외국어대(27일 2백명) 등과 전남대 부산대 등 지방대학에서도 교내시위를 벌였다.

孫錫錫문교부장관은 1월 27일 국회 문공위에서 박군사건이후 이 사건과 관련, 진국 12개 대학에서 교내시위가 있었으며, 서울대를 비롯 15개 대학에 분향소가 마련돼 많은 학생들이 분향했다고 밝혔다. 또 고문 비난 대자보는 진국 28개 대학에 나붙었으며, 11개 대학에서 유인물이 배포됐다고 밝혔다.

고려대교수들 조의표해

박군의 죽음에 대한 서울대측의 반응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학생들이 16일 분향소를 설치하자 이것이 벌미가 될까봐 연이하과 교수 몇명이 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하며 동향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신대교수들의 「우리의 견해」

2월 3일에는 한신대(학장 鄭大爲)교수단 54명이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박군고문치사사건과 관련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내용은 학생진문.

「우리 한신대학 교수들은 뒤늦게나마 스승된 도리로서 고 박종철군의 영전에 미리 속어 정중히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억누를 길 없는 통분함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가족들에게 한 사회를 이끌고 바로잡아가야 할 책임있는 지식인으로서 깊이 사죄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번의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과 같은 야만적 폭력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를 느낀다.

인간의 인간성과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수 없는 천부의 것이며, 그것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확보된다. 인간이 비인간화될 제도나 권력의 위세를 빌어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할 때 인간의 인간성과 존엄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물먹이고, 두들기고, 도살할 때, 더우기 그러한 행위를 권력과 제도가 비호하고 은폐할 때 인간은 인간되기를 그치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모든 관계는 끊어진다. 기기에 시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경제적인 유희학의 약속도, 어떤 민주적 제도도 실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해에 부친사의 권양 성고문사건을 통해 인간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마지막 피어린 절규를 들었었다. '너네도 말이 있고 너네도 사람이다'고 외친 목소리, 이것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때문이라고 외친 권양의 목소리는 이미 우리 민족의 공지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헌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마지막 조종처럼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다시금 이 땅의 민주화를 외치던 꽃다운 생명들이 야만적 폭력 앞에 끊어졌고 그 부모는 뚝뚝한 것이 쇠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며, 이 땅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운위할 수가 있겠는가? 박종철군의 죽음은 이제 우리 모

두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조종으로서, 우리 모두의 인간성과 자존심에 대한 조종으로서 음울하게 울리고 있다.

우리들은 비량에선 우리들의 양심과 자존심을 난타하는 저 종소리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제 또 다시 박종철군처럼 숨질지 모르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무책임과 무감각으로부터 분연히 떨쳐 일어서야 한다. 일제의 잔재로 시, 유신시대의 폭력적 정치 아래 더욱 음습하게 자라난 고문의 악몽을 세척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력의 속임수와 국민의 외면 속에 신음해야 했던 사람들과 신음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고문과 채물로서라지간 박종철군의 혼령을 우리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위로해야 한다.

고문은 법과 제도의 정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대우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사라진다. 엠네스티보고서가 세계 여러 곳의 경우들에서 군사정권의 종식과 고문의 종식이 궤를 같이

종교인들의 분노

는 저녁 9시까지 연구실을 지키기로 뜻을 모았읍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고 되어 있다. 이날 밤 남아 있었던 사회대의 한 교수는 '가능한 한 조용히 의미를 살리기 위해 서로 모여 있지 않고 각자의 연구실을 지키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디성시대 김봉규교수(영문과) 등 10명도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니동 캠퍼스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교수 등은 이 성명에서 '이민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간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억압을 외면한 체 진행된 일련의 반민주적 조치 속에 시 인권이 유린되어 온 결과 발생한 것이다. : 민주주의 사회는 인간성의 존엄과 양심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이민사건은 우리 모두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다. : 이같은 인권유린이 다시는 자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민주화와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한 바이다. 비민주적으로 출발한 권력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힘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폭력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고문의 종식은 그리므로 근원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운동이며, 정통성이 있는 권력을 창출하려는 운동이다. 우리 헌신대교수 일동은 진심으로 이번 박종철군사건을 계기로 삼아, 국민들은 인간의 인간성과 인간성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정권을 창출하려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권력자는 권력의 출발점과 속성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역사적 전환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교수들, 시한부 추모동성하기도

張炳圭문교부 대학정책실장은 다음 날인 4일 정대위헌신대학장을 문교부로 불러 '헌신대교수들의 성명서 발표가 태대교수들에 미친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본의진' 이니진 학생들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박군에 대한 추모행사는 모든 종파를 초월했다. 인권문제에 진보적인 천주교, 보수성향이 강한 기독교, 시국문제에 적극적인 한국교회, 그리고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천주교서울대교구 김희환주교는 1월 18일 정오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고문과 인권유린의 죄악을 어떻게 사죄할지 사죄할지 기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참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것이 유린당했을 때 오늘날의로운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기장은 1월 26일 저녁 6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박종철군 추도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인권회복미사'에서 박종철군의 죽음을 민주제단에 바친다는 강론을 통해 '의로운 분노'를 터뜨렸다. (全文은 이 글 맨 뒤에 실었음) 이날 미사가 끝나자 2천여명의 시도들은 박군의 영정과 대형십자가를 든 1백50여명의 사제 수녀단을 앞세

목하라'고 구두 경고했다. 박군사건 후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서울대교수들 중 1백여명이 2월 5일 박군에 대한 추도의사표시로 이날 밤 9시까지 퇴근하지 않고 각자 연구실에서 남아 있다. 귀가했다. 은종이, 시한부 추모동성'을 한 것이다.

교수들은 2월 1, 2일경부터 인문대 사회대 교수들 중심으로 '보교의 교수로서 박군 죽음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시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그 방법으로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키기로 결정, 4일과 5일사이에 사발통문으로 알렸다. '알리는 말씀'이라는 애모지'는

'지난 1월 14일 인문대학 인이학과 박종철군의 고문에 의한 죽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제자를 잃었읍니다. 이는 단순한 한 집안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민주적 요소에 기인한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비통함을 금할 수 없읍니다. 이에 몇몇 교수들은 '은은' 제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는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월 5일(목요일) 하루

우고 성당입구까지 60m가량 침묵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성당입구에서 경찰과 대치한 채 사제단의 인도로 한 시간동안 목주기도와 「순교자의 노래」 등 성가를 불렀다.

치안본부의 박군사인발표 뒤 처음 맞는 일요일인 25일엔 전국의 많은 교회와 성당 등에서 박군을 위한 추모예배와 미사 등이 열렸다.

세문안교회(서울 종로구 신문로 남회장 金東益목사)에서는 25일 2만 여신도가 주일에 예배 참석, 박군 추모예배를 가졌다.

김목사는 설교에서 「박군사건은 오늘날의 현실이 어둠과 불신, 좌절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준 사건으로 헌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박군의 죽음은 인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중한 기회다. 전국민이 이러한 상황을 일수룩 짊어 민음을 갖고 고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에배가 끝난 뒤 청년신도들은 교인들에게 「방학이 통곡하라. 민족이여 울분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교육권에 서 청년대학생 2백 50여명은 「고문

추방을 위한 특별집회」를 갖고 「고문을 방지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추방운동도 벌이지 못한 전기독교인이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黃山城변호사의 강연을 들었다.

집회가 끝난 뒤 청년대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박군 조의금으로 11만 7천 3백원을 모금했다.

영락교회(당회장 金潤國목사), 구세군 江南영문(담임사관 朴達用)을 비롯, 인천 담동성당 등에서도 추모예배와 미사가 있었다.

2월 8일 오후 5시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서울 중구 정동)에서는 「박종철군 추모 및 고문철폐를 위한 미사」가 金成洙주교 집전으로 열렸다. 이날 미사에서 성공회는 성명서를 발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바른 행동과 바른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을 고문하고 죽여야 한다면 이 땅에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의 울부짖음을 들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사에는 분신자살한 서울대생 김세진군의 어머니 金順广씨, 윤보신전대통령부인 孔德貴어사, 金大中씨부인 李姬鎬어사, 朴炯圭목사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미사가 끝난 후 이들은 저녁 6시 40분경 햇불을 들고 「아버지는 말이 없어도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고 쓴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성당구내를 세바퀴도는 순행행사를 가졌다.

불교계계종 徐義玄총무원장은 19일 박군사건과 관련, 불교의 「天上天下唯我獨尊」은 하나의 인권선언인이라고 말하고, 치안기관에서 고문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원장은 박군 가족이 불교신자임을 고려, 오는 3월 3일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 차원의 49재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불교청년회(회장 裴英鎭·35) 회원 3백여명은 21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건지동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문철폐를 위한 추모 및 고문치시규탄 범회」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정권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姜大辰) 학생 1백여명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 앞뜰에서 「박종철군 추모 범회」를 갖고 「고문을 규탄했다.

두 원로의 유언적 메시지

민주협 민통련 민주화가 확실친협의 회, 한국정치민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천주교청신도수도회협의회, 자유실천운동협의회, 국제인권옹호한국인맹 여성단체연합회, 민주인문운동협의회, 민주정연구회, 민주인문운동협의회 한국인권옹호협회, 영등포산인선교회 朴永鎮열사추모사업회, 한국기독교노동자연합회 仁川지역연맹 仁川기독교인합회 仁川郡産 단체들은 성명서 발표, 유인물배포, 추모회 개최, 철야농성, 가두시위 등 갖가지 방법으로 승전 박종철군을 기리고 고문을 규탄하고 징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행사를 추진했다.

23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회생존전대책위원회 회원 80여명은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박군이 물고분으로 숨진 서울 용산구 장곡동 치안본부 대문 앞 구인자발 부근에서 박군 추모시위를 벌였다. 구정법률상담소장 李兌榮민호사 등

시위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차림에 삼배수건을 머리에 쓰고 「산자여 마르라」 「흔들리지 않게」 등의 노래를 부르고 「고문경찰 데려와라」 「성고분만은 권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내 아들 종철이 일어나라」 「우리가 드릴 앞세우고 시위를 벌이며 「우리의 울부짖음을 국민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유인물을 뿌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는 1월 23일 가맹교단장총무연합회의를 갖고 △NCC 가맹교단의 전국교회회는 2월중에 민주화와 고문추방을 위한 예배와 기도회를 갖고, △고문철폐를 위한 캠페인을 전국 교회에서 실시하고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며, △고문철폐를 위한 범종교적 단체(불교전주교전도교 등)와 인권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金在俊목사와 咸錫憲은 1월 19일 오전 NCC 인권위사무실에서 박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공동명의로 「세헤미리에 국민여리분께 드리는 간담회」를 발표했다. 박형규목사 등 종교지도자 5,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함용은 낭독하기 전 「이

것이 우리의 유언과도 같은 선언문」이라고 말했다. 연대시명한 김목사는 8일후인 1월 27일 밤새, 실제로 우리 사회에 대한 김목사의 최후메시지가 된 셈이다.

「시자가각으로 이등속으로 처단은 정국을 보다 못해 우리는 한국의 늑골어들의 대포로 자처하면서 온 마음 모아 탄원합니다. ... 늑골어가 가진 것은 경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의 유언과 같은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첫째 정부당국에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 흔적을 아무런 것에도 6개성상을 지나면서 온갖 치장을 했어도 국민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처음 개방정책을 표방했지만 날이 갈수록 북군대통치방식만 남지 않았습니까? ... 지난해 김근태씨 고문에도 뒤우치지 않고 성고문을 자행하더니 규기야 고문치사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도덕적 양심을 땅그리 잃어버린 것입니다. ...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국민, 죽음을 당한 박종철군 앞에

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어떤 결의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폭력에 저항하라는 말을 하면 폭력을 심어줍니다. 학생들은 세시대의 주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인양 행동해야 하며 여러분의 행동이 옳고 그들은 국민이 얼마나 호응하는지에서 반영됩니다. 국민을 일으킨 주자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어 아당 군인, 근로자와 기업주, 국민(씨일) 여러분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로 끝을 맺고 있다.

2. 7 추도식 대공방

「2·7 박종철군 추도회」 개최를 둘러싼 정국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원천봉쇄」 방침을 정한 경찰은 5일부터 「2·7」 30 작전이란 추도회, 일일봉쇄 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일제검문검색이 실시됐고, 명동성당 주변 도심지역에는 경찰병력이 대기 투입됐다. 대회는 자제 수백이 실시됐다.

한편 6일부터는 金大中 咸錫憲 朴

桐圭 宋建鎬 高銀씨 등에 대한 가택연금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2·7 추도회」는 불법우회집회로 단일 불법시위와 폭력소요 추도자 및 담자는 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金聖基 법무부장관의 경고담화가 잇는 후 경찰은 추도회 당일 경찰의 해산권유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간주, 구금하겠다고 엄정히 언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맞서 추도회준비위원회와 시민당 제야는 추도회를 끝까지 평화적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전원이 감도는 가운데 추도회 당일인 7일을 맞았다.

이날 오전 8시반부터 명동일대에는 경찰의 3중지시선이 쳐졌다. 이날 작전에 동원된 경찰은 총 1백53개 중대 3만3천6백여명, 이 중에는 지방에서 차출된 25개 중대 5천5백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명동일대 지하철 버스정류장이 폐쇄됐으며, 노점상도 대부분의 상가도 일시한 명동은 「태풍의 눈」처럼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서 서서히 명동

을 둘러싼 경찰지시선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추도회 참여자들은 롯데쇼핑 앞을 지로입구 명동입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등에서 경찰의 최루탄 공격과 저지 및 맞서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10분경 李敏雨 시민당 총재 등 당지도부와 당원 등 1백여명의 롯데호텔 프라자호텔 조선호텔 등에 흩어져 있다가 명동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들은 롯데쇼핑 앞에서 밀려난 학생과 시민 1천여명 및 지하철 2호선 출구로 입구역 광장에 있던 2백여명과 함께, 1천5백여명까지 시위군중이 불어났다. 이들은 「장기집권회책하는 실인정권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박종철을 살려내라」는 구호와 함께 부근의 영정이 담긴 전단을 뿌리며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최루탄세와 함께 개시된 해산작전으로 이종재 등은 관광공사 앞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상에서 약식추도식을 올렸다.

근처에 있던 5백여명의 학생 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합세했고 마침 광교일대를 지나던 차량들은 추도경

적을 울려 호응했다.

이날 추도회와 관련된 시위는 서울에서만도 19개소에서 벌여졌으며, 부산 광주 대전 마산 춘천 진주 군산 등 모두 8개시·도에서 추도시위가 있었다. 인행차는 모두 7백98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34명이 구속됐다.

한편 추도회장인 명동성당에서는

대회가 무산되자 당초 계획을 바꿔 본당과 성당입구에서 각각 1부 추도미사와 2부 추도회를 따로 개최했다. 오후 3시 10분 박군 영정과 대형십자가를 든 사제단을 선두로 「근조 박종철군」 등의 만장 50여개가 세워진 성당입구 통로를 따라 정문까지 침묵행진이 펼쳐졌다.

〔附〕 1월 26일 명동대성당에서 행한 金壽煥 추기경의 강론

박종철군의 죽음을 민주제단에 바친다

바로 「카인」의 대답을 하고 있어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월 14일 하늘까지 노한 경찰의 포악한 고문으로 숨진 서울대 학생 박종철군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송구최오르는 의분 속에 온 나라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할 말을 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 오늘입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 정

의사회라는 대한민국 안에서 백주에 한 침은이가 경찰에 인행된 지 수시간 후 시체로 변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한없이 아파하면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각자가 치해 있는 위치에서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제1독서에서는 아케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하고 물

집회를 끝내고 성당을 빠져나오던 수녀들은 로얄호텔앞에 운집해 있던 시민 3백여명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2·7 추도회」는 경찰의 저지로 무산된 채 산발적인 추도시위만 으로 끝나게 됐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아들, 네 제자, 네 침은이, 네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당」하고 채상을 치자 「억」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의무이 좁지나 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까짓것 가지고 뭘 그리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고문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잘나고 있었습니까,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제2독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 있으며,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이요,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박종철군과 한겨레요, 한 핏줄입니다. 위정자도 국민도 이땅도 야당도 부모도 교사도 종교인도 모두 한 젊은이의 참혹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은이의 익을한 죽음을 앞에서 우린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이 회열에 찬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참혹한 젊은이의 죽음에서 희망의 내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조사 마지막 구절처럼, '이제까지 부끄럽게 살아 온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새롭게 태어나 그가 못다 이룬 일을 뒤에 남은 우리가 이룬다면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때문에 그의 죽음에서 희망의 내일을 내다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문사례종의 하나

오늘이 성전에서 근본적으로 박종철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 정권에 대해 우선 하고 싶은 한마디 말은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박종철군의 참혹한 죽음은 우연한 돌발적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고문사건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천안공노할 부친경찰서 권양의 성고문사건과, 역시 제작년 9월에 있었던 진민청련의 정 김근태씨에 대한 경찰의 참혹한 고문사건, 이밖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고문사건을 중의 하나이며, 다른 한 가지도 헤아리기 힘들게 많은 수의 양심인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지속적인 불의의 사태는 극도로 악화된 단계로 보입니다. 그 실증은 우리는 현정권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고, 또 그중 상당수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적용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극심한 '인권침해' 실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 지난 해인 1986년 한 해의 우리 사회 현실에 드러난 대표적 양상은 한 마디로 '내내적 구속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2천4백여명이 넘는 데, 이것은 그보다 앞선 5년 동안에 걸쳐 구속된 양심인 약 1천2백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단일사건으로 진국대 동성사태에서 구속된 학생수만 해도 1천2백87명에 달하는데, 구속단계에서 이들은 '학생'이라는 호칭도 안쓰고 이른바 '공산혁명분자'라는 호칭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단계에서 이들 중 약 70%의 학생들을 다시 식압하고 대대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라고 합니다.

오늘의 젊은 학생들은 누가 부이라 해도 미지 않아 우리 사회를 짊어질 하나의 역사적 세대인 것입니다. 또

권력의 시너가 된 사법부

재야 민주세력쪽에서는 이를 '고문 및 용공조작'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성역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공산주의에 내포된 물질주의, 전체주의, 폭력의 범종범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제3세계 기적'에서 군부독재가 반발하는 결과로 좌익세력이 자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독재정권들은 명분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일당독재와 독집자본에 의한 심각한 민주적차, 인권유린 현상을 빚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바로 공산주의의 운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공화국 이래 양심적 민주세력과 젊은 세대에 의해 '독재'와 '파쇼'로 지적되고 저항반는 정권 담당자들이 명분상 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호호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현정권도 마찬가지가 되었을 때마다 인권침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을 자신들의 지상과제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인행과 불법체포, 감금 및 고문 등 인권유린이 수없이 바로 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가다가 농·어민, 노동자와 도시빈민들이 이 정권에 의해서 반대집 또는 비리까지 반

일상생활의 구체성 안에서 보면 우리 사회 각 가정의 귀한 아들딸들이 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나쁜 공산혁명분자이니가 집에서 나가 감옥에나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다면 이 나라의 나날은 어찌 되었을까? 어떻게 이처럼 무척임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또 이들 중 감옥에 못 집어넣거나 안 집어넣고 풀어준 그 70%의 학생들이 지향감 없이 자유의 상치를 회복하고 고분고분하게 사회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좌경학생내지공산혁명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정부와 이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의名所(區)

카페 페닌슐라

café Peninsula

20餘種의 朝食 메뉴를
망라한 아침 부페와
다양하고 부담없는
가격의 메뉴를 고루 갖춘
레스도랑 카페.
인강식을 겸한 샐러드
부페와 해산물特選
요리치구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問議 : 진화 771-10
교환 063



롯데빌딩

롯데의名所(Ⅷ)

비스트로

BISTRO

젊음의 낭만과 열기가 넘치는 최신 초호화 디스코클럽.

레이저 빔과 와이드 스크린의 눈부신 調和. 외국 여성 무용수의 환상적인 율동. 디스코의 새로운 次元입니다.

● 問議: 전화 771-10 교환 357/9



호빌롯데

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오염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이렇게 나쁘고, 구개불능이고 독재와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발민중적 반역사적 제도,로 인식되어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는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또 우리처럼 분단되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오히려 튼튼하게 하는 시독이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이 권고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내에 발생하

는 일부 모순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분립체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우리 교회로서도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요한 23세 교황, 지상의 평화 48).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근본 문제는 3권분립이 이룩되었고, 현실적으로도 헌법의 시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민주화가 되려면 3권분립을 명실상부하게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 기본법을 지킬 수 없고 정치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를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의 법집행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옹호하는 의무규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뿐더러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에 주어진 권한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 소송법 260조에는 제정신청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법원 형량부당한 장기구속 등의 부당으로 강요된 피의자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도 법원에서 공안 사건의 경우 거의 다 채택됨으로써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제정신청의 경우에는 지난 73년이 조항이 개정된 이후 14년 동안 유신체제를 거쳐 오면서 많은

고 있습니다. 또 형법 124조에는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엄히 금하고 있고, 125조에는 경찰과 검찰에 의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124조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25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영장, 구금이 따르는 변호사의 즉각적 간여 조건들이 법조문으로는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고문방지특가법에 따르면,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서 치상, 치사케 한 경우 최고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음

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의 법집행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옹호하는 의무규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뿐더러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에 주어진 권한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 소송법 260조에는 제정신청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법원 형량부당한 장기구속 등의 부당으로 강요된 피의자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도 법원에서 공안 사건의 경우 거의 다 채택됨으로써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제정신청의 경우에는 지난 73년이 조항이 개정된 이후 14년 동안 유신체제를 거쳐 오면서 많은

이렇게 인권옹호의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다 지켜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권옹호의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다 지켜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권의 도덕성에 귀착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권옹호의 법은 엄연히 있지만, 이를 앞장서 지키야 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이 법이나 규정을, 그들 자신은 마치 법을 초월한 존재이듯,

鮮度第一
진감음료로 마시는 우유는 첫째 신선해야 합니다. 해태우유는 신선도 제1우유로 인제나 신선한 우유를 목장에서 기장까지 공급합니다.

그래서 해태우유는 좋습니다



해태우유

법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았고, 또한 법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에게 맡겨진 인권옹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는 고문이 관행처럼 되었고, 마침내 이법의 고문치사의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해야 할 공권력에 의하여 오히려 인권이 말할 수 없이 거둬가듯 유린되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일 때 우리는 공권력 행사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 도대체 있느냐, 아니면 정권의 뿌리에는 총칼의 힘뿐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에 대한 의의가 근본적으로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국민인 우리에게 이런 정권을 그대로 마라야 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중대한 양심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불법의 자행에는 원칙적으로 「인본자유」의 결여가 그

원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언론자유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물이 없는 곳에 새가 난다는 이야기처럼 명백한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정권은 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른바 합의개헌을 받아들인다면, 언론기본법의 개폐를 검토하겠다고 하며, 합의개헌이 되면 구속자 석방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조진부로 협의할 대상에는 신기법이나 권력구조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자유와 「사법복권」 「구속자 석방」은 민주주의의 원리원칙적인 인간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무조건적이고 원천적인 신결 문제입니다. 묶인 이와 같은 이들이 합의 개헌을 위한 인질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차체에 밝혀두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 기회에 현정부가 이 민사권을 계기로 정부 스스로 공약한 바 없지 않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자체 내에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참회가 필요 합니다. 바깥을 고문치사케 한 수사관은 물론이요, 그 밖의 경우에도 고문을 한 모든 수사관들, 그들의 일을 잘 알면서도 승인 내지 묵인한 상급자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나라 안

에 있다는 것을 거둬들이면서도 지금까지자의 일처럼 무관심하였던 우리 모두가 「로디옹」과 같이 큰 네거리에서 사방은 세상을 향하여, 곧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차비로우신 하느님께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슴에 이런 참회와 속죄의 눈물이 흐를 때,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받을 때, 그리고 우리 사회는 비로소 있을 때, 우리와 우리 사회는 비로소

우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민주화의 길을 착실히 밟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다운 삶과 그런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된 존엄한 인간에 대한 모독 중에도 모독인 이런 행위는 차체에 참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고문이 있는 한 우리는 민주사회도, 인간다운 사회도 이를 수 없습니다. 고문이 있는 곳에 신진 조국이 있을 수 없고, 뿌더러 국가 안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문은 실로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중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우리의 죄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자신이 다시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정 회개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토스토에프스키」의 작품 「죄와

소화에 자신을 드립니다 히스탈 포르테



소화촉진, 가스제거, 이담작용
히스탈 포르테정
한독약품

구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 사회와 나라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이 땅은 다시는 고문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로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긴 그 마흔살의 청년에게 생가 명복을 빌며, 자신을 잃고 애통해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형제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의 희생이 우리의 정의로운 민주회복의 도정에 승리의 분기점이 되고, 지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통해 억울하게 현재 투옥 중에 있는 모든 양심인들의 석방을 바라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

金壽煥 추기경의 朴鍾哲군 추도미사 강론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월 14일 하늘마저 노랄 경찰의 포악한 고문으로 숨진 서울 대학생 朴鍾哲군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해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소구처 오트르그의 본소에는 나라의 모든 이들의 탄원을 흘리며 할 말을 잊고 하얗만 바라보고 있는 어제, 오늘입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 정의사회라는 대한민국 안에서 백주에 한 젊은이가 경찰에 연행된지 수 시간 후 시체로 변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없이 아파하면서 이제 정신을

통곡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승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합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이 회멸에 찬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참후한 한 젊은이의 죽음에서 희망의 내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조사 마지막 구절처럼, 『이제까지 부끄럽게 살아 온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새롭게 태어나 그가 못 다 이룬 일을 뒤에 남은 우리가 이룬다면,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때문에 그의 죽음에서 희망의 내일을 내다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그 본질적으로 박종철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 정권의 대해 우선하고 싶은 한 마디 말씀,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박종철군의 참혹한 죽음이 어떤 돌발적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고문 사건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천안호노할 부친 경찰서 권양의 성

가 다듬고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봐야 하겠읍니다.

제1독서에서는 야훼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아들, 네 제자, 네 젊은이, 네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탕하고 책상을 치자』 외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의혹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고문 사건과, 역시 제작년 9월에 있었던 천민청련 의장 김근태씨에 대한 경찰의 잔혹한 고문사건, 이 밖의 연속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고문 사례들 중의 하나이며, 다른 한편으로 해아리기 힘들게 많은 수의 양심인들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지속적인 불의의 사태는 구도도 약화된 단계로 보됩니다. 그 실상을 우리는 현정권의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또 그 중 상당수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전용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극심한 인권침해 실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 지난 해인 1986년 한 해의 우리 사회 현실에 드러난 대표적 양상은 한 마디로 『대대적 구속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2천4백여명의 넘는 데, 이것은 그보다 앞선 5년 동안의 걸쳐 구속된 양심수 약 1천2백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한국일보 86.12.13). 이 중에서 단일 사건

까지 갖가지고 될 그러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의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제2독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 있으며, 같은 하느님의 피조물이요,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있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박종철군과 한 거래요 한 피술입니다. 위정자도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부모도, 피사도, 종교인도 모두 한 젊은이의 참혹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으로 건국대 농성 사태에서 구속된 학생 수만 해도 1천2백87명에 달하는데, 구속 단계에서 이들에게는 『학생』이라는 호칭도 안 쓰고 이른바 『공산혁명분자』라는 호칭을 썼읍니다. 그리고 나서 기소 단계에서 이들 중 약 70%의 학생들을 다시 석방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무책임하고 대대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라고 합니다.

오늘의 젊은 학생들은 누가 무어라 해도 말지 않아 우리 사회를 젊어질 하나의 역사적 세대인 것입니다. 또 일상 생활의 구체성 안에서 보면 우리 사회 각 가정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나쁜 공산 혁명분자니까 집에서 나가 감옥에나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 나라의 내일은 어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처럼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또 이들 중 감옥에 못 집어넣거나 안 집어넣고 풀어준 그 70%의 학생들, 저항감이 없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

하고 고분고분하게 사회와 가정에 복귀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좌경 학생 내지 공산 혁명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야 민주 세력 쪽에서는 이를 '고문 및 용공 조작'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항산주의'란 한 이 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공산주의에 내포된 물질주의, 전체주의, 폭력의 변용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제3세계 지역에서 군부 독재에 반발하는 결과로 좌익 세력이 자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독재 정권들은 '평등'이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일당 독재와 독점 자본에 의한 심각한 빈부격차, 인권유린 현상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바로 공산주의의 은상이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제3공화국 이래 양심파 민주 세력과 젊은 세대에 의해 '독재'와 '파쇼'로 지적되고 저항받는 정권 담당자들이 명분상 표방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이었을 때마다 인필칭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을 자신들의 지상 과제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연행과 불법 체포, 감금 및 고문 등 인권 유린의 수 없이 바로 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어민, 노동자와 도시빈민들이 이 정권에 의해서 푸대접 또는 버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오염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어떻게 나쁘고, 구제불능이고, 독재와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제도로 인식되어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진정한 진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운영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불란서나 이탈리아도 우리처럼 분단되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오히려 튼튼하게 하는 서독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공산당의 합법화 되어 있어도 자유 민주주의 또는 민주

사회주의 정당이 견고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내에 발생하는 일부 모순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체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체도는 우리 교회로서도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요한 23세 교황, 지상의 평화 48).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에서의 근본 문제는 3권 분립이 이름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의 시너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참으로 민주화가 되려면 이 3권분립을 명실상부하게 원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 기본법을 지킬 수 없고, 정치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이번 박정철군의 고문 치사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정철군의 비통한 죽음의 국민 대중에겐 전집을 수없이 충격을 울분을 낳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고문 제발 방지」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고문 방지 특별기구 상설안」을 내놓았고, 여당 쪽에서는 개헌안에 「기본권 관련 수정 보완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까지 고문 금지의 법조문이나 제 기구가 없어서 고문이 자행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떠한 법적 제제도 인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 왔으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124조에는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을 엄히 금하고 있고, 125조에는 경찰과 검찰에 의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124조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25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연행에 따른 영장, 구금에 따른 변호사의 즉각적 잔여 조건들의 법조문으로는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고문방지 특가법에 따르면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해서 치상, 치사케 한 경우 최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의 법집행 남용

으로부터 인권을 옹호하는 의무 규정의 엄연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를 위해 사법부에 주어진 권한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 소송법 260조에는 재정신청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이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등의 방법으로 강요된 피의자의 진술은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도 법원에서 공안사건의 경우 거의 다 채택됨으로써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재정 신청의 경우에는 지난 73년 이 조항이 개정된 이후 14년 동안 유신 체제를 거쳐 오면서



간장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보!

해독의 물로 간세포 회복까지

해독·회복간장약
리카바

표준소매가: 100정 / 27,000원



유한양행

많은 고문시비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6월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법원이 성고문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들이 선 재정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렇게 인권 옹호의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따르지 않으므로 휴지화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권 옹호의 법은 엄연히 있지만, 이를 앞장서 지켜야 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위 법이나 규정을 그들 자신은 마치 법률을 초월한 존재인 듯, 법률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았고, 또한 법의 준엄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에게 맡겨진 인권 옹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는 고문의 관행처럼 되었고, 마침내 이번의 고문 처사의 비극을 당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해야 할 공권력의 의무 오히려 인권이 말할 수 없이 거둬져 유린되고,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야 합니다. 고문이 있는 한 우리는 민주사회도, 인간다운 사회도 이를 수 없습니다. 고문이 있는 곳에 선진 조국이 있을 수 없고, 뿐더러 국가 안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문은 진실로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중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자신이 다시 나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정 회개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죄와 벌』에 보면, 살인죄를 범한 주인공 로디옹과 스톨리니코프에게 그를 사랑하던 창녀 소나나는 『일어나서 곧장 나가시오. 가서 더럽힌 땅에 오드르 입만 주구, 그리고 사방은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면 서 나는 살인죄를 범했다고 소리쳐야 해! 그러면 신은 너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가서 그렇게 하겠니? 그렇게 하겠느냐 말아야?』라고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소나나는 그 죄를 함께 아파하고 누우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였답니다.

이것이 현실일 때 우리는 공권력 행사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 도대체 있느냐? 아니면 이 정권의 뿌리에는 총칼의 힘뿐이나? 하는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근본적으로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국민인 우리에게 이런 정권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중대한 양심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불법의 자행에는 원천적으로 '언론 자유'의 결여가 그 온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언론 자유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물이 없는 곳에 물기가 높고, 공기가 없는 곳에 새가 난다는 이야기처럼 명백한 거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정권은 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른바 '합의 개헌'을 받아들인다면, '언론 기본법'의 개폐를 검토하겠다는 고하며, 합의 개헌이 되면 구속자 석방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조건부로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함께 고痛的 심자가를 짊어지자'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로디옹은 그 말을 따라 회개함으로써 사람이 되었고, 소나나는 이 참회와 고행의 길에 줄곧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참회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고문처사케 한 수사관은 물론이요, 그밖의 경우에도 고문을 한 모든 수사관들, 그들의 일을 잘 알면서도 승인 내지 묵인한 상관자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이와 위정자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거듭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였던 우리 모두가 로디옹과 같이 큰 네거리에서 사방은 세상을 향하여, 곧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이런 참회와 속죄의 눈물의 흐름을 때, 그리고 하는님의 용서가 있을 때, 우리와 우리 사회는 비로소 구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협의할 대상에는 선거법이나 권력 구조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자유와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은 민주주의의 원리원칙인 인간 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무조건적이고 원천적인 선결 문제입니다. 묵인 이와 같은 이들이 합의 개헌을 위한 인질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차체에 밝혀두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 기회에 현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스스로 공약한 바 없지 않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자체 내의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민주화의 길을 착실히 밟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인간다운 삶과 그런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문과 같은 인권 유린,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된 존엄한 인간에 대한 모독 중에도 모독인 이런 행위는 차체에 참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 사회와 나라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땅은 다시는 고문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꽃다운 젊음은 나이로 원통하게 무성을 빼앗긴 고 박종철군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자식을 잃고 애통해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형제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의 희생이 우리의 정의로운 민주 회복의 도정에 승리의 분기점이 되고, 저력이 되어 줄 수 있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통해 억울하게 현재 투옥 중에 있는 모든 양심인들의 석방을 바라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한국인의 귀환

미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

신도판·326쪽·값3,200원

한신대 敎授團 견해문

우리 한신대학 교수들은 뒤늦게나마 스승된 도리로서 고 박종철관의 영전에 머리 숙여 정중히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의수를 길었던 통분함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가족들에게는 한 사회를 이끌고 바로 잡아가야 할 책임있는 지식인으로서 깊이 사죄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번의 박종철관 고문 살인 사건과 같은 야만적 폭력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를 느낀다.

인간의 인간됨과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천부의 것이며, 그것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확보

된다. 인간이 비인간화된 제도나 권력의 위세를 빌어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할 때 인간의 인간됨과 존엄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인간의 인간성을 짐승처럼 몰락이고, 두들기고, 도살할 때 더우기 그러한 행위를 권력과 제도가 비호하고 은폐할 때 인간은 인간되기를 그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끊어진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경제적인 유희의 약속도, 어떤 민주적 제도도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 해에 부친서의 권양 성고문 사건을 통해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마지막 피어린 절규를 들었었다. 『내네도 말이 있고 너네도 사

람이나』고 외친 목소리, 이것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람의 도리'기 때문이라고 외친 권양성의 목소리다. 이미 우리 민족의 긍지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마지막 조롱처럼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금 이 땅의 민주화를 외치던 꽃다운 한 생명이 야만적 폭력 앞에 끊어졌고 그 부모는 똑똑한 것이 죄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며, 이 땅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운위할 수가 있겠는가? 박종철관의 죽음은 이제 우리 모두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조롱으로서, 우리 모두의 인간됨과 자존심

에 대한 조롱으로서 음울하게 울리고 있다.

우리들은 바람에 선 우리들의 양심과 자존심을 난타하는 저 조종소리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또 다시 조종소리를 들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무책임과 무감각으로부터 분명히 떨어져 나서야 한다.

일제의 잔재로서, 유신시대의 폭력적 정치 아래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고문의 악몽을 세척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력의 속임수와 국민들의 외면 속에 신음해야 했던 사람들과 신음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고문의 제물로 사라져간 박종철관의 혼령을 우리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위로해야 한다.

고문은 법과 제도의 정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대우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사라진다.

앤네스티 보고서가 세계 여러 곳의 경우를 들어서 군사정권의 종식과 고문의 종식이 কে를 같이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한 바 있다.

비민주적으로 출발한 권력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힘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폭력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고문의 종식은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며, 정당성이 있는 권력을 창출하려는 운동이다. 우리 한신대학 교수 일동은 진심으로 이번 박종철관 사건을 계기로 삼아, 국민들은 인간의 인간됨과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과 새로운 민주 정권을 창출하며 법치주의 운동으로 권력자는 권력의 출발점과 속성을 빼아포게 반성하며 역사적 전환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987년 2월 3일
한신대학 교수단 ●


산 을

코리안 호텔

서비스의 호텔 코리안 특별이제 수 있습니다.

- 부페식당
- 일식당
- 중식당
- 커피숍
- 바
- 사우나
- 나이트클럽
- 이음실, 터키탕

예약 : (0422) 44-9911



코리안 호텔

辯協 「고문대책공청회」 拷問피해증언

백기완씨의 견해

법관직별 장애, 최추분리징

본인이 금번 부천시 성고문 규탄대회(1986년 7월 19일)로 구속된 백기완의 처김정숙입니다. 본인의 남편 백기완은 지금 심각한 병중에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물론 고문 때문입니다.

79년 당시 남편의 구속은 명동사건이었고 그것의 목적은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대가로서 돌아온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이 가혹한 고문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문으로 인한

지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병사직전까지 이르러서야 겨우 병보석으로 출감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수없이 계속된 병보석요청을 무시하였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출감시켰다).

그후,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죽음과 싸워야 하는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장 몇 개월에 걸친 입원, 그리고 1년 이상의 요양이 그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최추분리징, 골관절염, 통풍... 등 일반인에게는 용어조차 낯선 병명이 십여 개가 넘도록 항상 따라다녔으며 적어도 1년에 2-3번 이상의 고문후유증이 재발하곤 합니다. 입원, 퇴원, 이것은 그와 제 가족에게

일년에도 몇 번씩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문은 그에게 평생의 지병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고문과의 투쟁은 그의 평생 작업종도 하나의 중대한 일로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권의 부패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각한 고문자행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권양에 대한 부천시 성고문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고문이 문귀동이라는 자에 의해 버젓이 자행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그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취한 태도는 그저 은폐시키는

태도였습니다. 소위 유언비어로 매도, 대량구속의 상투적 수법이 또 자행되었을 것입니다.

「부천시 성고문 규탄대회」는 바로 이러한 행정권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사실을 규명하려는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것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남편은 과정의 서병기 몸이므로 그들의 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성고문의 진상이 폭로되면서 행정권은 이 사건을 폭력적으로 탄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분명함에도 계속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것은 곧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고문사건이 폭로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자나 수배자가 대부분 석방되거나 수배가 해제된 것은 이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남편은 끊임없이 저들의 추적에 시달려왔고 늘 기약은 후유증이 재발하여, 도저히 구슈낼 수 없는 병약한 상태였으나

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도 무시한 채 본인의 남편을 구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악랄한 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남편을 구속함으로써, 성고문사건의 진상을 또다시 은폐하고 실추된 정권의 정통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려는 음모와 그것을 폭로한 본인의 남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동시에 피하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의 집요한 추적으로 다시 구금의 몸이 된 본인의 남편은 지병으로 인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부천시 사건의 진상이 증명된 지금 본인의 남편은 절대로 구속될 수 없으며, 구속되어서도 안됩니다. 생명의 위험에까지 처해 있는 본인의 남편에 대한 구속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1986년 12월 1일
백기완의 처 김정숙

미스유니버스대회 방해미담사건 확인
우, 권양씨 견해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전기고문

1980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미스유니버스대회에 대해 당시 광주사태와 같은 민족적 비극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때 미인대회를 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사부단장 광부 출신으로 당시 통사담당원이던 황인오씨와 통일사화당 노동국장이던 권운상씨 등이 나눈 대화가 문제가 되어 폭발물 사용음모 및 계엄령 위반으로 징역 10-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여기의 자료는 황인오씨의 상고이유서 중에서 고문에 관계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상고인원」 1980년 6월 27일 정선경찰서에 체포된 이래 동년 7월 29일 서울 구치소에 틀어박힌 이후 8월 중순까지 현재 강원도 정선경찰서, 치안본부 특별수사대, 동대공본실 수사조사감찰부, 서대문경찰서 등 각종 수사기관을 전전하며 온갖 고문들을 당해 보았을

다. 상고인이 당한 내용은 1980년 6월 27일 20시경부터 동 28일 6시까지 10시간 동안 정선경찰서장 총경 권모의 전화지시와 동서 수사과장의 지휘 아래(관동청성명불상) 순경 고연근외 7

18인이 20명평 되는 홀에서 상고인의 손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코에 물뭍기, 코와 입으로 고춧가루 물뭍기, 비너꽃기, 통닭구이, 무릎에 몽둥이를 끼우고 3인이 고대로 뛰어 내리기, 발가벗고 거꾸로 매달려서 소위 비행기 타기, 넓은 홀 한가운데 두고 718인이 몽둥이와 고무호스로 무차별 타격하기, 손톱 밑에 바늘찌르기 등등과 치안본부 특별수사대 제3반에서 대장 안현상 총경의 직접지시에 의해 운문중환, 오모, 유모에 의해 6월28일 23시부터 7월8일 경까지 이영호 등 7, 8명이 고대로 들리와 진술한 정선 경찰서의 고문 내용과 대동소이한 폭행, 고문, 잠안재우기 등과 7월8일 이후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경위 이근환에 의해 전기의자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朝鮮日報 選書 0002

祝祭와 마당극

80년대의 혼돈과 갈등의
뜻을 '놀이문화'로 조명,
민족문화 근원을 추적.

李相日 4X6판 320쪽
값 2,800원

그러나 아무런 어려운 신체적 고문의 라도 상고인 자신에게만 가해졌다면 이토록 서럽고 한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없는 여동생까지 끌어들여 신체의 만행을 자행하고 상고인인 오빠로 하여금 이를 모격하도록 했을 때 상고인은 차라리 죽을 수 있던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았읍니다.

1980년 6월30일 오전 9시경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내의 치안본부 특별수사대(합동 수사본부 수사 제9국 2지대) 대강실에서 대장 총경 안현상에 게 이본인과 동소속 제3반장 권보경에게 이란, 년을 연행해서 본대를 보외취'라고 하기에 상고인은 그래도 설마하여 그들에게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사실을 전부 말한 것이니 제발 믿어주고 죄없는 여동생은 살려주기를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경 호텔외식 당응임원으로 고생하는 찬찬 몸이라고, 강원도 광산의 사흘 굶은 개도 안 물이 갈 탄광생의 딸이라고 해서, 건물 1

층 좌측 제3반의 압수를 창고에서 상고인과 권운상씨 앞에서 제3반장 권보경감의 지휘아래 오모, 유모 수사관과 특히 운문중환 수사관이 갖은 고문을 하며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제대로 한번 퍼보지 못하고 자란 제 여동생을, 23세나 되는 가엾은 여동생의 옷을 발가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코에다 물을 들이붓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것입니다.

상고인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견디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와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정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경우

아우슈비츠 연상하며

이제 간략하게 9월 한 달 동안 난영동에서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검사가 제지하고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방청석에서 '놔둬', '도둑놈들이' 라는 아우성이 터짐. 지난 9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참혹한 고문행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기억을 되살리며 치열한 분노와 슬픔을 감을 느낍니다. 우선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본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을 받기 위해서 깨부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더 많이 깨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안보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만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하여 좀더 일찍 체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게 자신을 포기할 계기를 주기 위해서 고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세번째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심문의 시작될 때는 언제나 고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번째는 본인을 고문대 위의 열을 띄우고 그 후 자들의 요구하는 것을 안기시키고 학습시키고 복습을 시켰습니다.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은 온몸이 비되고 계획되고 의도된 것의 부분입니다(지친 듯 잠깐 중단함).

이러한 과정에서 고문자들이 본인에게 요구했던 첫번째로는 폭력혁명주의자인 것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본인의 사상이 사회주의이다.

세번째로 민청련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첫 깃발을 80년대 이후에 올렸고, 그리고 각계 각층에 작동하는 선과 인물을 대라. 다시 말하면 본인이 한국의 민주화운동 반군사독재운동에 있어서의 지휘자 수퍼맨이 된 것을 자백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예컨대 학생과 노동자, 현실정치인, 재야, 개신교, 가톨릭, 심지어 미국사업가 또는 현 정치권력 내부에서 누구와 민주화운동을 의논해서 해나가는지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수퍼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랬더니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은 이 용서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는 자들에게 인간적 절망과 분노를 느꼈읍니다. 그 과정에서 동시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본인에게 절대적인 한신으로 구별했습니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4일로부터 9월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부터 발생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던 동안 비명의

마감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의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하였습니다(이 지리온 듯 말을 중단하고 난간을 붙들면서 잠깐 쉬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9월4일날 각 5시간씩 두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5일, 9월6일 각 한차례씩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곁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차례, 13일, 13일 금요일입니다. 9월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날의 최후의 만찬이다』, 『나, 장례날이다』 이러한 험박을 가하면서 두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검사가 이의제기하자 방청석에서 '조용히 해', '계속해'라고 외침). 그 다음에 20일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차례 받았읍니다.

그리고 25일날 집단적 연인 폭행에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밤을 굶은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 유증으로 지금까지

지 밤을 먼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고문을 할 때는 밤을 주지 않는데, 고문을 하지 않을 때도 밤을 주지 않아 심리적인 압박과 고문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증언을 하면, 이 고문자들은 고문을 가하면서 에컨대 8일날에는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사장이란 자가 오전 10시에 5층 15호실, 본인이 고문을 받았던 그곳실 내로 들어와서 『코구멍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실신)해서 (시인)케 만들어버려라, 내가 직접 이것을 지휘하겠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전두라는 자는 『정치가 범보다 가깝다』, 다시 말하면 『주먹이 범보다 가깝다』는 것을 본인에게 납득시키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델시가 방을 짓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다니는 진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이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위에서 줄 테니까 그때 내가 복수를 해

라』 이러한 참혹한 이야기를 하며 본인에 대해 동물적인 능욕을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알몸이 되고 알몸 상태로 고문대에 위에 묶여졌읍니다. 추위로 인해 신체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에 대해 상적인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제 생식기를 가리키면서 『이 것도 좆이라고 달고 다녀』 민주화운동 을 하는 놈들은 다 이 따위야!』 이렇게, 말하자면 잘아몽개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읍니다.

고문을 할 때는 온 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읍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 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요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깔아줍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읍니다. 처음엔 약하고 잠깐씩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이때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 본인도 울먹이며 진술함)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방청석은 울음을 바다가 되고 심지어 고도관들조차 숙연해진)는 노래를 뇌카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일어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읍니다(방청석 통곡).

그리고는 비인간적인 고문이 자행되는 것을 보니 「새로운 판주사태가 발생하거나 준비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며 본인은 여기에서 죽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고문 담당자에게 말하자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굴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고문은 진술거부 때문의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 도 분노와 흥분의 빛이 없이 냉담하게 미소까지 띄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의 문부림 앞에서 이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

문을 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애정어린 말들을 주고 받았으며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고문과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던 말입니까? 이렇게 양면성이 공존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지지 않았읍니다. 고문을 전담하던 자 중의 한 사람은 「이름은 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혼자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를 『고문을 하는 것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 허위로라도 인정해라. 여기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고 울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국 9월20일이 되어서는 도저히 버터내지 못하게 만신창이가 되었고, 9월25일에는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본인에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빌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내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26일날 포니승용차를 타고 서부역을 지날 때 낮익은 거리, 푸른 하늘이 아직도 있구나. 푸른 하늘이 나에게 다시 왔다. 이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부된 것인가 하는 감회가 새로웠읍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검찰청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제 처를 만났읍니다. 대기실에서 첫뵈개진 본인의 발뒤꿈치를 제 처와 이을호씨 부인 최정순씨가 보았습니다. 그때 대기실 건너편 옥상에서는 인부 1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탐과 창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구나, 저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구나,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로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도 협박적인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건의 실제적 진실, 사법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요구가 보장되고, 현재 양심수나 재소자의 인간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의 사실이 충분히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미정연 이영호씨 경위

23일간 굶고 잠 못 잔 후...

▲1985년 9월 24일 11검찰로 송치, 연행된 지 23일 만의 일이었다. 이때까지의 경과를, 부인은 치안본부고문수사요인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서정권은 인신구속에 관한 죄무를 행하는 자로서, 1985년 9월 2일부터 1985년 9월 23일까지 피의자에 대하여 밤을 굶기고 잠을 채우지 않았을뿐더러 세칭 「물고민」 등 동을 하고 「빨갱이한테서 돈을 받아 집 샀지?」 너도 빨갱이다!」 전향하면 배를리 대접해 줄 테니 전향하라!」는 등 온갖 모욕과 욕설을 퍼붓고 모친 수사를 계속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고!」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김근태 전 의장의 폭로에서나 최근의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훨씬 잔인

하고 비인간적으로 행해졌을 것이 틀림 없었다. 이에 대하여 부인은 그 후 탄원서에서,

『치안본부에서 23일간 조사를 받던 동안 이윤호씨를 24일 밤 11시의 밤을 못 먹었다. 잠을 자지 못해 피가 흐르지 않는 느낌이다』고 검찰청에서 만났을 때 하소연을 하였읍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밤마다 잠잠잠씩 놀란다. 몸을 지탱할 수가 없다. 온 몸에서 진땀이 흐른다」고 하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연행된 지 44일 만에 마침내 정신이상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후 구치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철창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옷을 발기발기 찢으며 알몸이 되어도 수치감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인 저는 차라리 같이 미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리나 팔이 하나 부러졌다면, 아니 육신의 병으로 피를 쏟는다 해도 그렇게까지 암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고 기록하고 있다.

▲9월 26일 2연행된 지 25일 만에 처음으로, 검사실에서 면회가 이루어졌다. 초췌할 대로 초췌한 모습의 이를

호씨는 부인에게 15일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다. 눈빛은 엄격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불안해 보였다.

▲10월 3일 10월 14일 서울구치소에서 발작증세를 보였다.

▲10월 12일 그동안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빠진 이윤호씨를, 더 이상 수감 생활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억류하다가 부인을 불러 확인차 면회를 추진했다. 그러나 발작상태가 심하여 면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0월 15일 서울시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울시립병원 은 오래된 건물로 시설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연행 아닌 연고지 없는 행려병자들을 강제 수용하는 가축장 같은 곳이다. 남자인 환원은 그를 「빨간도깨비」라고 불렀다. 이윤호씨는 이곳에 치료차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발작을 했다 안했나를 관찰하는 소위 「감정유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치료없이 방치되었다. 발작을 하면 온 몸을 묶어 매달아 놓았다.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잤다.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11월 5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위 속에 있는 걸 전부 토해낸다. 그러고도 계속 물을 먹으면 방귀를 끼게 되고, 똥을 누게 된다. 그리고는 실신이다. 이러한 고문의 처음 이를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되었고, 9월 1, 2일 경에도 또 한차례 행해졌다.

고문을 당하게 되면 수사관들에 대한 공포심은 극에 달한다. 또다시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은, 수사관의 큰소리만 질러도 심장을 떨게 만든다. 고문으로 인한 위축된 심리상태와 불안한 정신상태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교도소로 송치된 후에도 한참 동안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덜컹덜컹 문을 여는 소리에 잠잠잠씩 놀라야 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심리상태는 어떠했던가? 치안본부 고문실을 벗어났다든 일종의 안도감과 함께 더 이상의 고문과 사전왜곡이나 없으면 좋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 바로 그것이였다. 조사를 받는 장소가 치안본부에서 검찰청으로 바뀌었을 뿐, 폭력에 대한 공포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심리상태나 방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신상태는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검찰 자술서는 경찰자술서를 이것저것 뒤져서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에도, 검찰은 검사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검찰조사와 자술서의 임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가 자기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사지휘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에 대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양심을 속이는 짓이라라. 검찰은 고문수사를 직접 지시했거나 방조·부인했을 것이다. 고문수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검찰로서 어떻게 「순순히 자백」은 운운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고문은 가장 더러운 폭력행위이며, 인간성에 대한 철저한 파괴행위이다. 최소한의 기본인권마저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법의 심판」은 형식은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5.3 인천사태 고문사례

전자본, 헤그리프 등 갖가지 방법으로

▲개요

유가증해가는 병을 견디지 못한 부인이 각계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석방만이 그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안되면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였다.

서울대 민주위사건 문용시씨 경우

철성관 위에 발가벗긴 채

본인은 85년 8월 28일 체포되어 9월 20일 송치될 때까지 24일 동안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수사를 받았다. 수사는 고문에서 시작하여 고문으로 끝날 만큼 잔인했다. 온 몸을 발가벗긴 채 고문대에 위에 공중 묶여 몇 심본이 고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했다(고문대를 그곳에서는 철성관이라고 부른다. 나중에야 이게 관속 바닥에 가는 널조각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았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원래의 의미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철성관 위에 묶인 사람은 산 송장과 진베 없게 된다).

음직일 수 있는 것은 손가락과 발가락 뽕뽕 물을 먹기 시작한 후 한참 지나면

5월 3일 유산된 신민당의 인천개헌

대회 및 시위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어 구속되거나 즉심에 회부되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여기서는 신민당 조사단의 작성한 인천사태(고문)보고서를 통해 그 고문사례를 살펴보았다.

(1) 전원이 폭행당하여 교도소에 입소될 때에는 제대로 걸음을 걷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모두 심한 폭행을 당하고,

(2) ① 일방적, 공동적인 고문사례는 ① 양팔과 양손을 모두 수감으로 채우고 그 아래, 위의 수갑을 끈으로 묶고 그 끈에 침대봉을 끼워 책상과 책상사이에 걸쳐 놓아 거기에 사람의 몸을 매달아 발로 찹음(별명, 통닭구이)。

② 야구방망이로 발바닥, 정강이를 때렸음. ③ 책상 위에 나란히 보드려놓고 그 몸위를 구둑발로 질질질 걷밟았으며 여러차례 왕복하여 걸었음.

④ 여자의 경우는 하복부, 음부 같은 곳을 구둑발로 차서 고통과 모욕감을 주었음.

⑤요드러 벤치기 1시간, 폼발질 1백회 시키고,
⑥주먹으로 머리, 얼굴, 무릎, 머리

기 이상의 형태로 먼저, 약 1시간 가량 폭력을 행사한 뒤 기진맥진케 하고 허탈감과 환멸을 남게 하여 자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고문이었고, 개인의 구체적인 조사에 나타난 고문 사례는

⑦문은 말에 부인하면 또 때리고, 그래서 시인하다가, 또 부인하면 또 때리는 식이었는데, 특히 박병우의 경우, 이는 부평경찰서에 5월3일 구속되었는데, 부평경찰서에서 동부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전경으로부터 무수히 구타당하고 보호실에서도 구타당하였는데 그것은 5월3일 밤12시부터 5월4일 새벽7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약 10분 간격으로 이러한 구타와 기압을 당하며 입과 코에서 유혈이 난자했고, 조사자인 김영기 형사는 소위 조직 조사를 한다며, 부평서의 지하실에서 박병우의 옷을 벗기고 수건을 일말에 씌우고 주전자의 물을 고에 넣어 「물고문」까지 하였음.

⑧한위생의 경우, 역시 부평서에서

(80년 해직기자) 박성득씨(80년 해직기자) 이석원씨(연합 사무차장) 등들은 갖수단을 동원하여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배자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구속자 가족들의 고통보다 몇십배 더한 것이었습니다.

홍수원씨 가족은 형사들의 협박에 불안에 떨며 매일 생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웃집에 불러가면 그곳까지 찾아와 「내가 직원이다」라며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이웃과의 친분마저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동네에서도 고립된 실정입니다. 심지어 시장에 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시내를 가더라도 형사 몇 명이 뒤를 밟아 가족들의 행동은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고통은 이러한 저들의 물리적인 탄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의 근원은 우리를 둘러싼 서글픈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남편이 왜 「보도지침」을 폭로했으며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어찌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조국의 현실이 우리를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조사받았든 바, 5월 3일에 수감되었으나, 2박 3일 동안 전경의 내무반에서 구타하고 역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주전자 「물고문」을 하다가는, 지하실로 데려가 공포분위기 속에서 「전자봉」이라는 특수기구를 팔뚝에 대어 전기를 가전시켜 지금도 피부가 타서 그 자욱이 있다 하며,
⑨이상명의 경우 「헤드 락」이라는 수법으로 가호행위를 당했는데, 이는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발안을 빙빙 돌리거나 한손으로 머리카락을 쥐고잡고 또 한손으로 턱을 잡고 좌우로 고개를 흔들며 대는 수법인데 머리가 부었다 함.

「보도지침」 폭로 관련자 가족의 호소문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 어떻게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되는지요. 저희들은 「보도지침」 폭로와 관련되어 지난 12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태홍(연합 사무국장) 신홍범(연합 실행위원) 김주연(한국일보기자)의 가족들입니다.

오늘도 수사 도중 고문을 받아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관의 사망소식을 접하며 가슴이 한없이 떨려오고 어찌면 우리 남편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가슴을 얼어붙게 합니다. 「내자식은 못돼서 죽었어. 요즘 세상에 똑똑한 놈은 다 못된거야」라며 오열을 터뜨렸던 그 아버지의 슬픔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한없는 슬픔으로 넘쳐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당지에 배려 없는 노동자, 학생들의 참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매시간 고통받아야 하며 그 가족은 또 얼마나 애타는 가슴을 안고 울부짖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할단 말입니까? 남편의 고문소식이 연합에 의해서 발표되자 집의 연일 괴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판 걷는 것과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내 남편의 석방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지난 9월 「보도지침」을 폭로한 이후 「말특집호」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물론 저희 가족들이 받아들인 고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루종일 호구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심점 앞에 승용차를 대놓고 감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한밤중에 전화하는 것은 예사이고 허구헌날 형사가 들이닥쳐 집수색을 해가는데 도저히 정정당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홍씨와 신홍범씨가 잠깐간 이후 집에 대한 감시는 일단 풀이되었으며 저희는 오히려 두 사람의 잠깐간 것이 차라리 잘되었다 싶은 심정까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철도 안뜰 어린이들을 매일 형사와 맞부딪치게 해야 하는 어미의 심정도 심정어려니와 수배된 남편으로 인해 처안본부에 끌려가 후독한 매일을 당하고 나오던 남편 친구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김태홍씨와 신홍범씨가 구속되자 저들의 손은 또 다시 연합의 다른 실무자에게 뻗쳐 현재는 홍수원씨(80년 해직기자) 박우정씨

주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 한 내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허락되는 한 민주언론과 민주주의 실천을 위하여 또다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바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제 남편을 위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걱정을 해주십시오.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날 비로소 우리의 고통도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1월 20일 「보도지침」 관련 구속자, 수배자 가족일동
특수질도 무죄판결의 피의자 서재선씨(27세)

신문지로 팔들기급아 수감재도 뒤

그 당시 시간은 6월 26일 20시경에 봉고차에 실려 구타를 당하며 동대문 경찰서 옆에 있는 구전매장 자리 2층으로 끌려가 김선태와 분류시켜 놓고 저는 조그마한 창고 같은 방에 끌려가

「나가 혼친 것을 대라」고 하면서 무작정 구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했다고 하니깐 이틀은 기억이 안 나지만 7~8명의 형사중 하나가 옷일명 고문복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깐 옷을 가져와 옷을 갈아입히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문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신문지로 팔뚝을 감고 그 위에 수갑을 채워(일명 뿔수갑) 의자에 앉혀 다시 손목과 발을 의자에 묶어 의자를 두 사람의 번쩍 들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7~8명의 형사가 한 사람은 나의 머리를 뒤로 제치고 다른 사람들은 배 위에 올라가 저의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의 다리를 잡고 또 한 사람은 저의 옷을 벗겨 사타구니를 비비게 하였읍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전자에 고춧가루를 타서 만든 물을 넣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의 입과 코에 수건을 막고 그 위에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기 시작하였읍니다.

형사들이 고문을 하면서 있다고 생각하면 손만 까다까다 하라고 하였읍니다.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되었고, 이로써 경찰의 고문 및 영타리 조사가 드러나게 되었다. 「라고 보도를 보고 그간 세칭 「윤노파」 사건과 「여대생」 사건 등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등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 재판의 귀추를 주시하여 오던 터라 조사기관의 고문 등 인권유린 사태를 근절시켜야 하겠다는 결의로써 1982년 9월 13일 인권옹호위원회 회의의를 거쳐 「김시훈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읍니다.

이에 조사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본인의 진술을 듣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고문 등 인권유린 사실을 알게 되어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에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 사실
1981년 6월 24일 24시경 발생한 전주시 효자동 살인사건의 조사본부장 김정 정○원, 동 부분부장 경위 ○병 권, 동 오○영, 동 전담관 표재○, 동 박○윤, 동 최명미상 형사의 조사요원

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안했다고 하였으나 너무나 가혹한 고문에 못이겨 기절하고 말았읍니다. 기절하면 체 일팔에 물을 붓고 깨운 다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무릎 사이에 쇠파이프를 끼어 놓고 두 형사가 짓밟았읍니다.

그래도 안했다고 하니깐 겨자를 코에 투입하여 시인 아닌 시인을 하게 하였읍니다. 고문에 못이겨 두세 차례씩이나 지갑을 비웠다고 허위 자백한 장소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리지 않은 지갑이 있었리가 있었읍니까.

지갑을 버린 곳에 나가 못 찾아올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읍니다. 그 당시 형사들에게 파이프를 맞아 오른쪽 눈썹 밑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읍니다.

「국립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문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니까 「이거는 대동령의 지시」라고 하며, 「너 같은 새끼들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한다」고 하면서 모진 고문을 하였읍니다. 공범으로 같이 들어왔던 김선태는 고

1, 동 오○영 의 조사요원 성명미상 수명은 공모하의 구속영장이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가, 1981년 7월 12일 20시경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우화대부락 뒷산 대목장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대전시 동구 대동 194(3동 1반) 피해자 김시훈 30세, 남자(을) 1981년 6월 24일 24시경 발생한 전주시 효자동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갑을 채워 포승으로 묶어 불법으로 체포하고(형법 제 124조)

나, 1981년 7월 12일 12시경부 터 1981년 7월 13일 9시경까지 전주시 북문로 1가 133 국제여관 205호실에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몸을 묶은 채 위 피해자를 동소·무제 이불장의 불법으로 감금하고(형법 제 124조),
2, 동 정○원, 동 ○병 권, 동 오○영, 동 박○윤, 동 최명미상은 위 조사요원 성명미상 수명과 공모하여,
가, 1981년 7월 13일 16시경부 터 1981년 7월 14일 6시경까지 전주경찰서 진부 2동 파출소 2층 수

직실에서

문에 못이겨 허를 깨물어 자살까지 하려고 하였읍니다. 김선태는 혀가 잘려 나갔읍니다.

김선태와 저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아직도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김시훈씨 경위

고 발 인 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

원회

위원장 유택형

피고발인 전주경찰서

(1) 경 정 정○원

(2) 경 위 위 ○병 권

(3) 경 위 위 오○영

(4) 계급미상 표재○

(5) 경 사 박○윤

(6) 계급미상 최명미상자

의 수명

▲ 고발의 경위

대한변호사협회는 1982년 9월 10일자 도하 일간지에 피고인 「김시훈」이 가살인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유살이 14개월 만에 진범 3명의 구속기소로

(1) 직권을 남용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2) 동소에서 위 피해자를 별거벗기

어 철제 의자 다리에 양발을 묶고 양팔을 위 의자에 수갑으로 함께 채운 후 위 최명미상자는 곤봉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내리쳐서 성기가 극도로 붓고 멍이 들게 하고 곤봉으로 머리를 수회 강타하고,
(3) 위 오○영, 박○윤은 동인 17시

경 동소 무류탕에서 동인을 살인혐의로 신문함의 기하여 동인의 행적을 허위 진술한다는 구실과 위 살인사건 압수물 인 흰 바탕 줄무늬 티셔츠 조각이 동인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구실로 위 피해자를 묶었던 포승을 풀어 수갑 찬 위에 수건을 말아 덮고 그 위로 포승을 묶고 양무릎 다리 사이에 묶인 팔을 벌려서 끼우고 끼운 위로 양무릎 사이에 직경 4cm, 길이 2m의 철봉을 끼운 후 철제 의자 두개 사이에 위 철봉 양끝을 올려 놓음으로써 위 피해자가 위 의자들 사이에서 거꾸로 매달리게 하고 수도에 연결된 고무호스로 동인의 가슴에 물을 뿌리고 거꾸로 된 얼굴에 수건을 덮고 머리를 잡아 물을 뿌

린 후 비누물과 고춧가루물을 들이붓고 이에 동인이 코에 스퍼드든 물을 삼켜 버리자 수건을 입안에 처박아 막고 다시 코와 눈에는 고춧가루를 쳐넣은 후 호스물을 코에 흘려 넣어서 동인을 기절케 하고 정신을 차리던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며 동인을 4회 가량 기절하도록 하고 수시 동인의 등과 엉덩이에 알 수 없는 기구를 사용하여 전기를 방전시키고 고통을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각 가혹행위를 하고(형법 제 125조)

나, 1981년 7월 14일 21시경부터 1981년 7월 15일 6시경까지 동소 목욕탕에서 전시와 같은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전시와 같은 구실로 두 의자를 합쳐서 목고 위 피해자를 두의자에 끼운 후 전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고(형법 제 125조)다, 동 박○은은 1981년 7월 15일 10시경부터 1981년 7월 16일 6시경까지 전주시 효자동 3가 4178의 6 비사별자립원 식량창고에서 전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자택을 받은 목적으로 된 동인이 행적진술을 함에 있어

전주역 발차 상행특급열차의 발차시간이 아닌 1981년 6월 24일 14시에 상행열차를 탔다고 진술함을 구실삼아 동인의 명치 끝의 배를 자전거 튜브 3개를 겹으로 하여 의자에 묶어 호출관란을 일으키게 하며 수시간 후에는 결국 실신케 하고 동일 밤 시간 미상경에 동인을 깨워서 동창고 벽에 걸린 피살자 최현석의 일복 사진과 유품인 자전거 및 가방의 그림에 후렛쉬를 비추어 보이면서 동인에게 「최현석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라 강요하였으나 거절하자 약품미상의 약물(환각제인 도한)을 태워서 연기를 나게 한 후 동인에게 이를 흡입케 함으로써 몽롱한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고 계속 굶겨가면서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각 가혹행위를 하고(형법 제 125조)

라, 1981년 7월 16일 10시경부터 1981년 7월 17일 6시경까지 직권을 남용하여
(1) 위 조사요원 성명미상 2명은 동 16일 10시경부터 동일 12시경까지 사이에 전항기재 장소에서 동인의 출자 줄지 못하게 끈으로 동인의 머리를

朝鮮日報 選書 0003

人間은 왜 自殺하는가

자살의 실상을 파헤쳐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극을 물리치는 연구서.
어린 스텝겔·4X6판 272쪽·값 2,600원

수십회 강타하고 동인을 담요로 말아 동창고 앞마당 뜨거운 햇볕에 내놓아서 심하게 맘을 졸리게 하고 동인이 무이 타서 물을 찾자 주전자의 물을 동인의 머리에 조금씩 부으면서, 「잠들하나 만 내놓아라」하고 강요하고,
(2) 위 조사요원 성명미상 1명은 동일 12시경부터 13시경까지의 사이에 전주시 소재 대한의원 진찰실에 동인을 연행하여 동원장 한방수에게 부탁 동원간호원 성명미상으로 하여금 약품미상의 약물주사(환각제인 도한)를 동인의 엉덩이에 2회 주사케 하여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고,
(3) 위 박○은, 위 조사요원 수명은은 동일 13시경부터 동일 밤 시간 미상경까지 위 창고에서 동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끈으로 두우측 하퇴부의 일정부위와 머리를 수십회 강타하고 위 박○은

은 백지와 볼펜을 주면서 불러주던 대로 쓰라고 강요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위 성명미상자 수명은과 함께 동인의 입에 수건을 틀어막고 코에 물을 부어 기절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던 다시 이를 반복함으로써 탈진상태에 이르게 하고 「기왕에 사형당할 몸이니 뭐냐나 성해서 사형을 당하라」고 하므로 동인으로 수심회 강타하고 끝내 동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각 가혹행위를 하고(형법 제 125조)

마, 이와 같은 불법구속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동인을 주결심판에 회부하여 구류 5일을 받게 하고 동 구류기간이

경과한 후 1981년 7월 19일부터 1981년 7월 20일까지 동인에 대한 구속영장없이 동인을 전술한 진복2동파출소 2층 숙직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형법 제 124조)

3, 동 정○은, 동서유치장 간수 성명미상 2명은 공모하여 동인에 대한 구류 5일의 형을 집행함에 있어 동인을 동서 유치장에 입감시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1년 7월 14일 17시 20분 동서유치장에 입감시키고 구류 만 3일인 동월 18일 18시 석방하여 정당하게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인 동서 81년 구속인명부 제 731호, 구속별 일사란에 1981년 7월 14일 17시 20분 주결

심판인도 「석방일일사란에」 1981년 7월 18일 18시 석방사유란에 「구류만 기선방」이라고 기재하고 동서 동년도 「근수근무일지」 1981년 7월 14일자 정범입감란에 1, 특기사항란에 「17시 20분 정범 김시훈 구속입감」이라고 기재하고 동 정○은은 서장 결재란에 동인전결문 각 싸인하고 동 성명미상 1명은 위 구속인명부 취급자란에 싸인하고 다른 성명미상 1명은 위 「간수근무일지」 취급자란에 싸인하여서 위 각 공문서를 허위작성하고 2시경 동서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형법 제 227조, 229조)다.


델리슌(1층)

쥬리앙

JULIAN

- 풍부한 경험으로 코리어나 정성있는 엄선된 제품만 판매했습니다.
- 각종 데코레이션케익
- 다양한 파이종류와 패스트리
- 알몬드 스틱과 쿠키

예약: 730-9911 | 교: 898



코리어나호텔

제132회임시國會本會議속기록

▲의정 李載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1 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朴鍾哲사망사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장관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金聖基 지난 1월 14일 서울 용산구갈월동소재 치안본부 대공 2부건물 조사실에서 서울 대학생 朴鍾哲군의 조사를 받던 중 불행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경황을 지휘하는 검찰의 감독자로서 또 구정의 책임임을 맡고 있는 구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 씀을 드리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일 변사사건발생보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내에 그 진상을 규명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사체를 부검하기로 하고 1월 15일 21시 5분부터 22시 25분까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安商守의 직접 지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黃迪駿박사의 지도와 한양대학교부속병원 당직의사 朴東皓박사, 朴鍾哲군의 유가족인 숙부 朴月吉씨의 입회하에 면밀한 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되어 동일 11시 20분경 정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은 1월 24일 趙漢慶 姜鎭圭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의정 李載潑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먼저 신임인사를 하고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鄭鎬溶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이 박군을 죽임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는 결코 변명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우리 경찰의 진정새로 태어난다는 각오와 결의로 심기일전하여 어떠한 가혹행위도 우리 경찰조직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건경위인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결과 밝혀진 사건의 진상은 먼저 朴鍾哲군은 86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불법가두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있던 학생으로서 계속 각종 학생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서울대 민주위사건 관련 중요 수배자인 등 대학 朴鍾靄과 연계하여 소위 전국학생운동지도부라는 좌경조직에 관계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1월 14일 6시 40분경 趙漢慶 등 치안본부 대공3부5과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9동246의 26소재 하수집에서 동일 7시 10분경 조사실로 임의동행되었습니다.

▲金鉉圭의원인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朴鍾哲군 고문살해 관계장관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이 자리가 병치레를 모르고 건강했던 한 젊은이가 가난속에 서 밝고 깨끗했던 21년 생애를 흥기화한 공권력에 의해 빼앗긴 채 이 못난 조국을 원망하며 배회하고 있을 朴鍾哲군의 영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준엄한 명령과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침부의 말들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의 솔직한 심정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밝고 건강한 이 나라의 젊은이 朴鍾哲군이 죽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죽은 것은 박군이 아니라 현 정권의 통치기반과 그리고 이것을 지탱해 온 윤리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1년 3월 3일 제 5공화국 제 12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취임사를 통해 정치적 탄압과 폭력으로 부터의 해방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 그리고 헌법의

적사항 등 간단한 신문을 하고 아침 식사와 후식을 취하게 한 다음 동일 10시 50분경 趙漢慶 姜鎭圭 등 2명이 한 조가 되어 朴鍾哲군의 과거 각종 시위주도혐의, 서클관계, 朴鍾靄의 소재 등에 관하여 신문할 하던 중 朴鍾哲군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동일 11시 10분경 趙漢慶은 姜鎭圭에게 그 조사실 안에 있는 는 길이 1백 23cm, 높이가 57cm, 폭 73cm 의 인조대리석제 무요탕에 물을 채우게 한 뒤 朴鍾哲군의 상의를 벗기고 무요탕 앞으로 데리고 가서 姜鎭圭는 양팔을 朴鍾哲군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목 뒤에서 각지를 끼고 머리와 상반신을 누르고 趙漢慶은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세게 눌러 물을 끌어내어 약 20초 있다가 다시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약 1분 내지 2분후 끌어내어 약 20초 있다가 다시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朴鍾哲군의 심한 몸부림을 치면서 머리를 물위로 들려고 하므로 趙漢慶은 발과 무릎으로 朴鍾哲군의 상반신을 강하게 밀어 조이고 趙漢慶은 다시 머리를 수분간 물속으로 누르던 동안 朴鍾哲군의 목이 높이 57cm 너비 6.5cm의 목조탁에 눌리게

면무관규정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인
간 존엄성에 대한 야수적 행위이며 민
주국가 문명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 인권유린행위이며 공권력의 의
한 살인행위인 이같은 전근대적 고문행
위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실험이라
도 하듯이 나라 각급 수사기관 본실별
관의 밀실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으
며 특히 학생과 민주인사 등에 대한 무
자비한 고문행위는 부도덕한 정권의 유
지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국민적 저항
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규탄하기 국민들의 분노
에 충격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은 심지
어 바로 이 자리에 서서도 가혹행위자
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고 가슴스러운 위중을 거듭해 왔습
니다.

이 위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세 분 장관중에 누구라도 답
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
저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의 두
개의 표적중 하나인 국가 공권력에 의
한 폭력이 이제는 선진조국 민주복지국
가라는 목소리가 무성한 이 나라에서

근절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왜로부터 폭군치하의 백성은 폭군
보다 훨씬 거칠어지며 모든 폭력은 상
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상대를 순
종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폭력과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의 유독히 소리 높
이 고창된 현재 5공화국에 들어 유독
히 폭력과 탄압이 만연 창칼하고 아니
오허려 폭력과 탄압이 정권 유지의 유
일한 수단이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현 정권의 폭력에 의한 탄
압은 현 5공화국의 국정지표와 모순되
는데 이 점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화학
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 정권은 폭력으로 점철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릴 때 새전을 다친
몸은 커서 마음을 태운다.는 식으로 이
제는 만사를 물리적 폭력이라는 역리에
의존하는 정권이 되었습니까?

우리 동료 俞成煥의원은 감옥에 면회
가서, 「고생 많지요?」 하고 위로하는 등
료원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팎
이 다 감옥인데 어디에 있건 큰 차이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찰
은 이 야만적인 고문살인 사건 발생 30
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은폐 호도 하려

니다.

형사소송법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구속사실을 가
족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이나 보
호유치의 의할 때에나 이러한 조항이
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의
형식을 띤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보호
유치는 구속과 같은 실질적인 성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의조사라는 미명
아래 피의자에게 구속보다 더 가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조사기관의 불법적인 탄압과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가 바로 이같은 탄압
상황에서 저절로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
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할 용의
가 있습니까?

李泰模의원 본의원은 이번 사건을
몇 명의 수사관이 저지른 우발적인 사
건이 아니라 조직적이면서도 구조적으
로 일어난 제도적인 폭력으로서 결국
정권의 의한 폭력차사사건으로 단정하
는 바입니다. 법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

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사건현장을 보존하지 않았고 광 치니
까 의하고 쓰러져 쇼크사했다고 하는가
하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고
의지를 썼습니까? 부검이 끝나기도 바
쁘게 사인도 밝혀지 않은채 유일한 목
증인 사체를 화장했고 영안실에서 도 행
사가 유족대표로 위장하여 기자들을 내
쫓아 보냈습니까? 검찰은 왜 이 사건
조사도중에 경찰 자체조사에 맡겼는지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거짓으로 말미암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하는
무서운 결과를 정부에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불화와 갈등으로 가득찬 이
시대를 보면서 본인의 정치의 길에 나
서게 된 것에 가늘 길 없는 회한과 함
계 끊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면서 서울
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朴鍾哲(박진)
스물한살의 젊은 나이에 채피어나지도 못
한 꽃용오리로 떨어져 간 그의 짧았던
삶과 고귀한 죽음을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으면서
본의원의 직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

에도 불구하고 고문만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고문의 정치권력에 의해서
비호되고 자행되고 있음에 입증하는 일
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5공화국이 출범된 이후 두 번
의 걸친 고문치사사건의 발생했다고 하
는 이 엄연한 사실은 이 정권의 문자
그대로 고문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차량 우리의 정치권력이 고문정권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
유는 우리의 정권이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반민주적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서 원천적
인 방인은 정권을 민주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일의 필 것입니다.
고문의 정권근절장치를 위한 합법적 수단
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어
떻게 타개할 것이며 朴鍾哲(박진) 사건 역
시 정권유지를 위한 정권변형으로 보던
국민적 평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고문퇴치를 위한 본질적 대책은 무엇인
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검찰은 일말없는 수사를 통해서 고문
만행을 저지른 두 경찰관을 끝까지 비

사합니다.
△公權權의인인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안
보 및 국민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보
호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고 확립되어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외면한 채 부정확
수단까지 동원해 가며 불법행위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불법
폭력으로 짓밟고 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실도써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입니다. 현행법상의 각종 제도 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손색이
없이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주의적 소송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인권보장책을 수용하고 있습
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
지 아니한다」 「본회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영장없이 구속되지 않는다」
고 하는 이런 인권보장을 규정하는 제
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관들의 지나친 직무의유이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

호하고 있습니다. 용공 과정으로 몰던 수많은 학생 특히 여학생들마저 수감을 찬 비참한 모습을 신문 지상과 TV 화면에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검찰이 이 두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감과정에서부터 어찌해서가 면밀히 둘러 씌워서 위장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고도소 출장조사와 중간발표의 생략등 완전한 비밀수사로 일관한 것은 우리 검찰의 반민주적 수사작태를 노정한 표본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은 국민과 격분함을 면하면서까지 두 경찰관을 끌까지 보호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범인의 실체와 수사기록등 사건일절을 국민앞에 참되게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범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체에 검찰과 사범부가 결합하여 고문사건을 부인한 바 있는 金權泰씨 사건이나 권양의 성고문사건 등 모든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해서 그 진상을 국민앞에 밝힐 용의가 없는지 범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哲의 발언** 저는 지난 1월18일 토요일 오후 2시반경에 부산시 서구 피

학원의 책임자올시다. 개인적으로는 朴鍾哲군의 대화선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태 이후에 피해자로서 문교책임자로서 선배로서 사과나 해명이나 대책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런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동지 여러분! 제가 무엇을 묻고 무슨 답변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사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국민이 불안하고 아무도 미래예측을 할 수 없는 심지어 소우환대통령 자신도 미래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함속의 해결책을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민주화없이 이 위기극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인데도 집권세력은 여전히 물리적인 힘으로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에 맞서서 이 반대되는 세력은 순리와 상식으로든 해결이 불가능이라고 믿고 그 가능성 때문에 힘으로 대항하려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가서 증가일로에 있고 이 나라는 드디어 계속 감옥이 만원사태가 되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속에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朴鍾哲군 고문

정동 사리암이라는 암자에서 朴鍾哲군 어머니와 그의 누이 朴恩淑양을 어떻게 상면하였습니까. 삼우제를 지내기 위해 서 대응전에 그의 영정과 제사상을 모셔 놓고 별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모녀를 만났습니까.

여기 우리 文正秀의원과 같이 우리 당의 조의를 전하고 조위금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신히 찾아 갔습니까. 먼저 절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님 종철이가 부산토성국민학교 알고 보니 내 후배고 대학을 따져도 내 후배고 성도 같고 이래서 저의 총격은 대단히 큼니다. 무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종철이의 영혼을 고이 삼갈게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몸을 던져서 이 개발방지를 하겠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그 누나 은수양의 '박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던져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는나'하고 받들었습니다.

치사사건이라고 얘기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물리적 폭력이 횡행하고 살기등등한 이 권력유지의 방편에서 생겨진 일련의 상황의 한 증표로서 일어난 일이지 단순히 학생 하나가 대공본실에 끌려가서 경찰관의 직무의유으로 과잉의유으로 피살되었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군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결과는 누구 말마따나 뜻밖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박군이 죽음을 당하기까지의 이르는 그 일련의 고문학은상황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공치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끌려가서 이러한 고문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재수없이 뜻밖의 박군처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파헤치고 이 상황을 논죄하고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론을 불신하는 것은 첫째로 사체부검에 관한 것입니다. 사체를 부검한 黃迪駁의사는 처음에 경찰이 한양대학교부속병원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번에 약속을 하면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몸을 던져서 재발방지 하겠다 하는 약속을 그 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입속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나와 우리 당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호곡소리가 지금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제 귀에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당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똑똑한 자식 낳아서 안돼! 똑똑한 자식 낳아서 안돼! 하는 이 절망감에 싸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범무부장관! 초동수사를 포기하고 범인없는 범인 일몰없는 밀실수사를 하고 경찰의 2차 발표에 깨어맞춘 수사관 해서 검찰권을 포기해 버린 그 지휘관으로서 범무부장관에게 제가 무엇을 묻고 장관계 어떤 이 사태의 광경을 위한 답변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교부장관! 거기 계시지마는 장관께서는 이 사태의 피해자의 입장에 선

사인양 위장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치안본부장의 실질적 지휘를 받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의 의사예요.

1월15일 저녁 9시15분 박군의 시신을 부검하기 직전에 직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尹重瓚씨와 黃迪駁씨가 치안본부건물에서 대공담당 5차장과 수사담당 3차장과 장시간 면담 속의 한 사실이 우리 신민당 조사결과 밝혀졌음니다.

무엇을 속의했습니까? 또 경찰의 입회인으로 발표했던 朴東皓의사는 한양대학교 당일 당직의사로서 그의 전문과목은 마취과야! 우리 신민당 조사단에 게 말하기를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부를 해본일이 없노라, 검사가 입회하라고 그래서 꾸어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양부는 세탁하면 되지만 인간은 세탁하는 방법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나는 정부 여당 동지 여러분들에게만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야당도... 우리 야당도 이 사태의 예방에

최선을 다했던가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한에서 탈출한 11명의 가족이 읍니다. 일본 현지에 국공영방송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앵커맨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자유가 그리워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앵커맨이 가야 합니다. 거기에 앵커맨이 가서 그 진상을 국민에게 속속들의 알리는데 그 노력의 3할정도를 박군 사건과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朴鍾哲군의 시신을 태운 그 계가 보도에 의하면 그 부모가 임진강 물에다가 아버지, 종철아 잘가그래이, 아버지지는 할 말이 없데이하고 물에 빠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날 임진강은 풍평일어볼어 있었읍니다.

따라서 종철이의 그 육신의 흔적은 그 옆을바닥에 부딪히서 강바닥에 눈보라가 되어가지고 서해에 흘러가지도 못하고 구만리 창양을 날으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의사당 상공도 맨들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서 87년 1월16일 예 장례를 치루었을 뿐입니다. 추의원단체에서 염려하시는 증거인멸 등의 뜻은 전혀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해서도 예의에 어긋나겠읍니다마는 차관은 참고인으로서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어서 연행한 것입니다.

朴槿錫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정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朴의원님의 말씀은 좋은 가르침이 되고 사량받고 신뢰받기 내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무부장관 金聖基 金鈺圭의원께서 고문행위와 대하여 가장 처벌하든 특가법 규정으로 신설한 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임진 처벌한 경우가 있는가 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규정은 1983년 12월31일에 신설된 것으로서 이 규정 신설 이후 현재까지 19명만이 임진하여 그 중 11명을 기소하여 임진 처벌하였고 8명을 증거불충분등 사유로 불기소처분하였읍니다.

다음 金鈺圭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이 영혼을 잡게우는 방법은 아까 어떤 동료의원께서 이것을 해집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를 두번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심디마는 저는 거꾸로 이 고독한 영혼을 우리가 거두어주기 위해서 그 의욕한 죽음을 밝혀 주고 왜 그 아버지가 아버지지는 할 말이 없데이하고 무형의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문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내무부장관 鄭鎬溶 박군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초기에 그 실수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 사건의 진상을 은닉할 의도하에 상부에 시간을 지체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의 상태였으므로 담당수사관들의 신변은 없었던 보고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전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조사되는 대로 전모를 밝혀겠다고 말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金重權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朴鍾哲군의 연행시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수사에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李泰模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처음 직원의 허위진술을 믿었다가 자체조사결과 차관을 조사한 趙漢慶 姜鎭圭등 2명이 가혹행위를 하여 차관을 치사케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지위를 요청하면서 다만 이 사건이 경찰의 잘못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인 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관들의 자질부족에서 비롯된 과오임을 시인하면서 일단 실추된 10만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해 왔읍니다.

이와 검찰은 사건의 전모는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사건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경찰로 하여금 피의자들을 즉시 구속하여 그 다음날 바로 송치토록 지휘하였던 것이며, 1월16일 이후 1월19일 구속시까지 4일간에 걸친 경찰수사에 있어서도 모두 검사가 구체적으로 수사를

은 87년 1월14일 오전 6시40분경 신림동 朴鍾哲군의 하숙집에서 연행되어 대공분실 조사실에 7시10분에 도착하였읍니다. 최초 경찰발표인 8시10분 도착은 조사결과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읍니다.

▲다음 수사경찰관이 차관을 고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수사경찰관의 인권보호의식의 미흡과 업무에 대한 과무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결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차관의 주요수배자를 은닉하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이를 사실대로 답변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관이 이성을 잃고 일으킨 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泰模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鍾哲군을 서둘러 화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셨읍니다.

87년 1월15일 부검을 마친 후 차관의 부모가 불교신자로서 일반적 장례의 관습인 3일장으로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할 바라고 있었읍니다. 이 원에 따라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 다음날인 1월20일 바로 송치를 받아 그간 수사에서 수집한 제반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면밀히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의원께서는 피의자 출석없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읍니다. 현장검증이나 실장조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방법의 일종으로서 모든 사건의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거나 또는 반드시 피의자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검사의 검시결과 및 부검결과에 의하여 차관의 사인인 경우 압박에 의한 질식사사인이 명백하여 구태여 피의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범행을 재현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의자들의 참여없이 실장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추의원께서는...

(장내소란)
▲내무부장관 孫製錫 朴槿錫의원님에게서 조급한 질의시의 본인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만 차관의 죽음에 관한 한 백번 꾸짖어도 할 말이 없고... 오직 유

구무원의 심정이라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朴鍾哲군의 명분을 받고 차군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깊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奉模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朴鍾哲군 사망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며 죄경화 구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군 사망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金鉉圭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이 학원의 소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죄경의식이 더 이상 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이념사상교육을 더욱 체계화하여 강화하는 한편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국민윤리의 내실화는 물론 정치 경제 국사 철학 등 이념 사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강좌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

유경제체제의 우월성을 확신시키고 이 에 도전하는 계반 좌경근친이론의 허구성을 특히 소련 중공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최근 자본주의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고 있는 실상을 소개함으로써 판단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념교육이 모자라서 차군이 죽었어요?) 하는 이 있음)

▲李永旭의원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범죄의 수사는 그 성질상 비밀을 요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 장소는 모든 국민이나 언론기관이 감시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마땅하며 그 장소가 지나치게 비밀을 강조하다가 보면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물지각한 자의 폭행 등 고문에 이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경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사분실·별실 등의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에서는 중요사건 검거시마다 1계급 특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근간 경찰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범죄방지 투쟁에 임하고 있음을 볼 때 수사의 능률을 높

정부 여당은 지혜롭게 알아 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고문사건의 수습으로 등장한 鄭내무부장관! 鄭장관은 광주살상 당시 관련 부대의 상급 총책임자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가요? 당시 직책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주의 잘못에서 다시 태어났노라, 따라서 이번의 수습장관으로 제대로 일할 해내겠노라,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鄭장관의 진술을 보고 많은 국민층의 산남의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많은 사실을 솔직히 말해 줍니다. 그리고 鄭장관은 방담 답변에서 죽은 차군이 피의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죽은 차군의 수배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가, 그 번호가 몇번인가 그리고 피의자로서 입건되었다면 정말로 입건이 되어있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죽은 차군은 전혀 숨어서 생활한 것이 아니었고 불면증의 생활을 했습니다. 결코 종전에 계속된 수배대상자로서의 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검찰

이 고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일리 있는 제도라고는 생각되나 다른 면에서 는 검거에 과열된 나머지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견지에서 이를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張基旭의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정권의 출범은 하자가 있었으며 사악함에 서 출발하였읍니다. 이제 과연 그러한 악마로부터의 초월한 다시 태어남의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차군의 죽음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일련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조치가 극히 미흡하다는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멍니다.

우선 첫째로 진상의 정확한 규명의 필요합니다. 진실만의 정의로 진실만의 힘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검찰은 그것을 호도하려 합니까? 그리고 국가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해서 그 진상을 밝혀줬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일마를 숨겼기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의에서든 그를 참고인이라고 발표하면 바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일종의 쉽게 말해서 증인의 율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부친성고문사건에서도 權양이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자기의 업무를 도와주어야 할 참고인을 억지로 끌어들이다... 일정한 장소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놓고 불법감금의 율입니다. 그레놓고 여학생에 대해서는 성고문을 한다 남학생에 대해서 는 죽이까지 한다, 이것은 경찰이 과연 할만한 일인가? 참으로 딱하기 그 지 없습니다.

金貽堯표 법무부장관! 중간에 고문의 정의를 검토해 봅시다. 법문사 법률학 사전 67 페이지 고문이라고 보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을 주는 것을 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고문의 權양, 그리고 이번 사건의 차군 모두 어떤 법인을 잡기 위한 소제를 알기 위한 참고인인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까지 고문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학사전에 있는 고문의 정의가 틀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경찰의 고문남용의 피의자

미가 우리의 상황속에서 우리의 현상항속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시정하는 의지가 실질적 태도가 필요한데 정부 여당 거리가 너무 멍니다. 정부 여당은 가해자 측이 옳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측인 그 주음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피해자측에 대해서 오늘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뭐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범국민추도위원회를 준비한다 하니까 무슨 연금을 하고 무슨 최루탄까지 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방방곡곡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임 鄭장관! 당신은 취임하면서 언필칭 순리와 상식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레 가해자측이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 분노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것거리들이 당신의 상식이요 당신의 손리란 말입니까? 대답해 주시요.

솔직히 말해서 시중에는 4.19전의 金朱烈의 죽음과 이번 차군의 죽음을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증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으니까 고문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어를 창조해야 하는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인은 이 법률학사관 장관에게 전해 주기 바랍니다. 「부장관!」 고문과 독재와의 관계에 관해서 그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독재정치가 없는 데에서는 고문이 없읍니다. 정치상황의 독재에서 종식되지 않을 때 고문은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장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죄 무과목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혹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데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야 된다는니 등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고문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 사기를 진작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처음 거짓발표를 한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만일 차군의 밤에 죽었다면 바다 밑이나 산중에 혹은 철도변에 그 사체를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吳演相의사의 발언이 우리 신민당 조사위원회에 일찍 청취되지 않았거나 후

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소위 말해서 무슨 「탐」 「특」 「유」 이렇게 자연사로 처리되었을 것이지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찰은 검사의 검시전에 시체를 이 병원에 병원으로 옮겨 놓고 뒤늦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최초로 보고한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병인장을 만났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시체를 경찰병원에서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받았다 이렇게 우리 신민당 조사단에 계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관장하의 경찰병원에 시체를 옮겨 놓고 진장을 조작하려 한 자 누구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기고문과 물고문의 도구인 분실의 침대 소위 침상대라고 그러합니다. 또 호텔도 아닌데 방마다 욕조와 화장실이 것에 설치했습니까? 그 설치한 이유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국사범문제에 정치경찰 해서 폴생각은 없고 현상만을 잡습니다. 이러한 학생 등 시국사범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검거한 경찰관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보로금을 준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치 도의적 문책, 정부당국자의 대국민 사과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등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즉각 강구했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각계각층 지도급인사들로 고문사건의 재발방지와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토록 내각에 지시했으며 내무부에서는 수사요원관리규정 제정과 수사요원에 대한 통제강화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정을 진행하고 법으로 정부를 이끌어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81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직무수행의 좌우명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정당도 당의대인 민주주의와 정의구현의 일환으로 이같은 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요원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불행한 사건의 발생은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문관련 경찰관의 즉각 구속과 해임, 치안 책임자 및 관계장관에 대한



간장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보

간해독인 물부터 간세포 회복까지

해독·회복간장약
리카바

표준수가: 100정 / 27,000원



유한양행

최근 5년간 그러한 형태로 낭비된 국고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文國鎭교수가 지은 최신 법의학 1백19페이지에 보면 「전류받은 습기가 많을 때 적게 생긴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전기고문은 물고문과 함께 하게 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본실의 침대 소위 침상대를 거친 술한 사람들의 증언 역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차군의 몸에 많은 부위의 혈응점이 전류반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동경대학의 上野正吉교수가 저술한 신법의학 책을 보면 전기작용이 있으면 폐실질의 소출혈이 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본해 왔으니까 1백29페이지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군의 폐에 있는 그 혈응점 그것이 바로 그 책에서 말하는 폐실질의 소출혈이 아니고 뭐냐 이것입니다.

▲朴敬錫의원 소斗煥대통령께서는 일찌기 81년 3월3일 12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적 강압과 권력남용의 이 땅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단호하며 깊이 자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정직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진면모를 국민앞에 보여준 것이며 초대통령의 통치이념과 민주발전의지를 실천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할 시국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87년을 참다운 개혁의 해로 이 나라 민주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민주원년의 되도록 힘모아 노력합시다.

▲법무부장관인 金聖基 전류집중부위에 전류반 즉 탄화현상과 그 둘째에 흥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결과 차군의 경

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고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음이 명백히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張基旭의원께서 폐음혈전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체를 부검감정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黃迪駿의 감정소견에 의하여 폐 조직검사결과 차군의 폐상부에서 폐결핵으로 인한 결절이 발견되었으며 위 반점은 차군의 상체를 육조 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목 조력에 부딪힐 때 큰 충격으로 결절의 파괴되면서 이로 인한 폐출혈로 반점이 생긴 것이라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의원께서 張基旭의원 수사본실 별실동에 대한 감찰사항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수사본실은 유치장이 아니고 조사장소이므로 유치장감찰의 대상이 되지 않음인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와 관련하여 불법구금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치장 감찰시 철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張基旭의원님의 질문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張의원님께서 법을 학사전에 의하면 고문은 피의

자나 피고자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인에 대한 가혹행위도 고문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張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법 제 125조에 의하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피의자 피고인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張의원께서는 학생등 시국사범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남·적용하여 사건을 조작 검거한 경찰관에게 국가보안법상 상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한 상급지급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체포하거나 이를 인정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신고한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국사범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조작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한 건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 張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고문의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결과 趙

잡기 위하여 수사관들의 사기양양 목적으로 현상금과 1계급 특진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사관의 과욕이나 지나친 공명심으로 무리한 직무수행도 인권 보호의식의 미흡 수사기술의 미숙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결여 등으로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張基旭의원께서 서두에 광주시태시에 본인의 직책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들의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고려를 합니다마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답변을 리겠습니다.



당신은 몇인분으로 통합니까?



마른 장작이 화력 좋다더니... 강한 체력과 남다른 일욕심을 가진 직장인 슈퍼스타 3인분씩,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겨난 별명은 아닙니다. 연이은 야근에도 끄떡없는 참치요리 페나 즐기시는 미식가입니다.

성인병 예방의 EPA와 制癌효과의 세레늄까지 듬뿍 들어있는 참치는 고단백 저칼로리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식사와 체중은 1인분, 업무능력과 성취는 3인분이 됩시다.

고단백 저칼로리 — 동원참치
자매품: 양반김/오대감구이

당시 본인은 특전사령관으로 작명에 의해서 본인이 지휘하던 사령부 관하의 7개 여단 중 3개 여단을 광주사태 진압을 위하여 전남남도 지구 계엄사령부에 작전 배속을 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배속이라는 뜻은 모체부대가 특전사령부이나 배속된 이후에 모든 작전권과 사령권은 계엄사령부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광주사태에 관한 본인의 심정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가슴아플 뿐입니다.

아 당시 희생된 많은 광주시민 및 군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있 을 뿐입니다. 차관은 수배자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

漢慶 등 2명이 차관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순간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가혹행위를 가하다가 사망한 것이며 살인의 범의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내무부장관 鄭鎬濬 우선 李永旭의원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간첩 등 국가주요사범을 제외한 모든 일반사범의 수사는 경찰관서가 아닌 대공본실이라든가 여관 호텔 등 제 3의 장소에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자의 감독하에서 조사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 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건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1계급 특진 등 특진혜택을 주는 것은 고문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현재 치안본부에서 수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어떤 학생이나 선량한 학생을 잡으려고 현상금을 걸거나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계도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염려하시는 죄경 용양분자들을

지 않았습시다. 다음은 고문과 독재정 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문과 독재정치가 상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고문이나 독재 등 비정치적 방법은 어떤 정치 상황하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吳演相의사의 증언이 없었다면 자연 사로 처리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 이 있었습시다. 수사중이던 피의자의 사망사실을 보고받고 사망정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자체감찰을 동원하여 1 차사망 정위를 조사한 바 고문치사의 혐의가 질여 자체 특별조사를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19일 관계

경찰관들을 구속한 것입니다. 자연사
 등은 폐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전에 시체를 옮겨 경찰병원에서
 검시하는 무었이나 하는 물음에 있었
 습니다.

조사관들이 중앙대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경찰병원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마
 는 이는 수사관들이 차관을 살려야 하
 겠다는 집념에서 1차 가까운 중앙대학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앙대병원에서 이
 미 사망하였다고 하므로 사체처리에 따
 른 비용문제 때문에 경찰병원으로 옮긴
 것이며 시체를 옮길 목적은 아니었습
 니다.

차관의 사체부검에 대한 내용을 밝히
 고 가능하면 감정서사본을 제출하도록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관의 사체부검 결과는 의표검사 소
 견상 안면부에 3개소 좌우양지에 3개
 소 좌측 사타구니에 3개소 좌우하지에
 6개소 등 전부 15개소의 멍상 흔적이
 나타났고 내경소견상 두부 7개소 경부
 에서 근육간 출혈의 흔적이 각각 나타
 났으며 병리조직검사상 활동성 폐결핵
 병변이 다소 발견되었으며 이상의 제검
 사와 경부의 근육간 출혈 안면부 출혈

54번째 강소영... 이렇게 많은 사람 그
 령게 오랫동안 불법감금해 가지고 또
 무슨 큰 사건하나 공표하려고 이것 무
 슌 짓거리입니까? 장관께 명단드릴테
 니까 한번 얼른 검찰국장 시켜가지고
 대검에 알아보세요. 도대체 이라고서도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못 받는다... 이러
 한 체제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이
 고 이러한 체제가 법치주의체제나 이 말
 이에요.

▲법무부장관 金鎭基 보충질문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순순하
 였겠으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연행한
 시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시 40분
 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때 경찰관 2명
 이 사안을 설명하고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거기에 저항없이 응해 온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건에 관해서 전기고문
 등에 관한...
 『답변』 왜 안해요? 『하』 이 있었
 (장대소란)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한 전기고문 등에 관
 해서는 이미 설명드릴 바가 있습니다.
 전기고문서에는 전류 접촉부위에 전류

상 및 안결막의 점상출혈 허파의 돌출,
 폐장에서의 폐기종상 소견을 동반한 무
 기폐동의 특장적 소견을 근거로 해서
 차관의 사망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인정됩니다. 부검에 대한 감
 정서 사본제출은 앞서 법무부장관의 답
 변과 같이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으며
 공판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므로 양지 하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조실에 화장실과 욕조를 설
 치한 이유는? 하는 물음입니다. 국가
 보인법 위반 피의자들은 보통 20일간의
 검치 조사를 받게되나 구속 피의자로서
 일반 무용담 시설을 활용할 수 없고 피
 의자의 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
 사실내에서 신문관의 입회하에 문부 또
 는 대소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張基旭의원 보충질의시간이 짧으므
 로 간단히 몇 마디만 보충질의하겠습
 니다.

장관께서는 저항없이 순응해 왔기 때
 문에 그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가
 아니라서 그래서 기소를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밤중에 경
 찰서로 가자고 그래서 다음 순순히 응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
 반 즉 탄화현상과 그 돌래에 흉탄의 생
 기게 되는데 부검결과 차관의 경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든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습
 니다. 이 부분이라고 답변드립니다.

다음 朴鍾哲의 마린에게 팔 다리 허
 범지 가슴부분등 10여군데에 피하출혈
 등이 있었는데 부검의 黃油駿의 진술과
 피의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 외
 상 등을 趙漢慶 등의 朴鍾哲의 마리를
 물속의 물리등을 때 그가 마리를 좌우
 로 흔들면서 무조변에 마리를 부딪치고
 무릎과 다리를 좌우로 뒤돌면서 무조
 바깥벽에 부딪치는 등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인정되며 趙漢慶 등이 욕조에서
 가혹행위를 하기 전에 그를 구타한 사
 실에 관하여는 그구 부인하고 있고 부
 검의 黃油駿도 피하출혈의 색깔로 보아
 위상해들이 같은 시기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달리 이전에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행방불명된 사람의 질의에 대
 한 답변은 왜 안 하는 거요? 장관님

부 보도에 의하면 연행도중에 입은 부
 상이라는 발표와 보도가 있었어요. 그
 외상의 일부는... 그렇다면 분명히 朴鍾
 哲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불법체포가 아
 니에요? 영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
 으면 긴급체포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세번째로 내무부장관도 지금 이 자리
 에서 외상이 없다는데 정도 있다. 보
 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것을 열아홉군
 데 무슨 이런 등등 피의의 있다고 그러
 니다. 응혈점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로 고문하는데 왜 응혈점이
 바깥에 생깁니까? 물이 무슨 펜대입니
 까? 물이 무슨 몽둥이입니까? 물이
 전기입니까? 그 점에 관해서 수사결과
 외상으로 나타나는데 피의는 도대체 어떻
 게 해서 생긴 것들인가? 수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김성식군 서을
 대 정영학과 노현숙 이남희 민병두 은
 순 이선희 이승환 이명식 김정환 김성
 혁 방창완 정용석 김유임 주상백 강인
 자 구인희 윤성규 하윤숙 이호관 최민
 목해정...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했잖아요』 하는 이 있었
 ▲내무부장관 鄭鎭濬 보충질의에 대해
 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 朴鍾哲군의
 사인을 자연사로 인해할 의사가 없었
 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의 심
 정으로서는 직접 고문을 해서 朴鍾哲군
 을 사망케 한 두 수사관은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해볼까 하고 아마 거짓말을
 최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미루어 보아서 이 두 수사관은 무었인
 가 자기의 처벌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은폐를 해 보자고 한 의도가 확실하
 였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독계통에 있는 사
 람들은 그러한 은폐의사는 전연 없었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가혹행위에 의해
 서 치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
 날 진실되게 밝혀질 수 있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의진 李載濬 그러면 이것으로 朴鍾
 哲 사망사건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제 132회 임시國會 內務委 속기록

▲黃瑒周의 의원 고문으로 살해된 고 박鍾哲군의 사인이 물고문에 의한 경우 암박살식사라고 하고 열다섯 군데의 멍과 심한 상처는 물고문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생긴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본위원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학생이 아무도 없던 밑실에 서 그런 고문을 당할 때 일이나 말버둥 쳤기에 그렇게 온 몸에 심한 멍이 들고 상처가 났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원통해서 나도 모르게 배갯잇에 젖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변호사이며 국제 엠네스티 집행위원회의장이었던 맥브라이더

화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 차군의 사망원인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라 아니라 박군의 목이 육조턱에 눌리어 질식사였다는 검찰과 경찰의 발표는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차군의 사인을 경부암 박살식사라고 했지만 차군의 부검을 직접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황적준 박사는 지난 22일 우리 신민당 진상조사반에 대한 증언에서 '부검결과를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과학 수사연구소의 발표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尹重鎮소장도 차안본부에 경부암박 질식사라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인발표를 할 수가 있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온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와 사인을 공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부검결과와 사인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 없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는 '고문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 정치적 후진국들은 고문으로 얻어낸 허위 자백을 통치의 근거로 써먹고 있다고 정치고문의 속성을 파헤치면서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도 고문을 반정부적인 국민으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쓰고 있다.'

국민의 동의없이 국민의 지지없이 통치하는 자들일수록 정권유지를 위해 고문을 효과적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정권하에 상응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는 정치적 고문은 첫째 이 정

장관! 그나마도 부검을 맡았던 이 황박사는 폐의 조직검사 결과 수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발표는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부검결과도 내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여 그러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나고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황박사는 차군의 사체에 입술과 코가 가진 흔적이 있었고 좌측대퇴부에 두 줄의 상처가 나 있었고 무릎 윗 부분에 상처가 나 있었고 왼쪽 장딴지에 엄지 손가락 반만한 크기의 멍이 있었고 오른쪽 엄지에도 2개의 멍이 있었는데 눈한 물체로 맞은 흔적 같았고 오른쪽 팔 윗부분에 멍은 자국이 있었으며 왼쪽 뒷목지 부분에 주사바늘 2개가 꽂힌 흔적이 있었고 뒷통수에 출혈과 이마에도 피하출혈이 있는 등 머리에 3, 4군 데나 두피출혈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장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상처들은 차군의 물고문을 당할 때 몸부림치다가 생긴 것이지 절대로 다른 고문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 한 수사관이 두 팔을 차군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무뎠

권에 반대하는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용공으로 몰아 억지로 공산분자로 조작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억어내고 거기에 필요한 억지 자백을 얻으려고 고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정부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제거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째로 이렇게 고문과 폭행을 일삼음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소수로 전락시켜 이 사람들만 제거하면 현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고문을 불가결한 통치수단으로 제도

에서 각지를 끼고 다른 수사관이 한 손으로 차군의 뒷통수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 항우장사라면 모르지만 어린 학생의 몸으로써 도저히 반항하기가 어렵고 뒷통수에서 피가 날 정도의 타박상은 몸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후조벽에 부딪쳐 생길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고문에는 기본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온갖 폭행을 가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있을 때 물고문 전기고문의 '코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차군의 물고문을 당할 때는 이미 힘이 빠져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심히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반항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실태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 보았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두 경찰관의 두팔을 쥘려고 한 장관의 머리를 쳐놓고 이런 상태에서 어린 학생의 몸부림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반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신민당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박군의 이와 같은 상치가 물론 고문에 항거하기 위해서든, 독립투사가 생긴 단순한 상치가 아니라 전기고문이나 다른 가혹행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기고문을 해 놓고도 박군의 사인을 경부암발질식사라고 조작하는 그 이유는 전기고문의 발전점을 때 치안본부 대공본실의 고문을 하기 위한 전기장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나고 그것 때문에 고문이 제도화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인을 조작발표했고, 그 증거를 영원히 인멸시키기 위해서, 박군을 해부한 지 불과 10시간만에 가매장을 얹고 급히 화장을 해버렸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崔致煥의원 崔致煥의원입니다. 전투경찰이라든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경찰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찰이라든 이름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데 그 외에도 전투라는 것을 붙여서 경찰이라든 낱말을 붙인다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투경찰이라든 것이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산악에 항만에 가 있는 사람보다 도시에 있어서 학생 데모나 대처하는 전투경찰이 많은데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투하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자체가 고문도 강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부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투경찰이 516만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바꾸시오. 그리고 그 숫자를 줄이시오.

특수경찰로 하든지 기동경찰로 하든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싸우자는 것입니까? 전투라면 죽지 않으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고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포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는 그 고문관계를 볼 때 고문은 조사형사들과 전투경찰의 의식

동연합 金文洙씨 등에 가한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에 대한 재수사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5.3 인천사태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고문 받은 權양의 경우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계간 상습적으로 성고문의 자행되었다고 알고 있고 담변 건국대 학생사건의 서도 구타와 고문의 전횡했을뿐 아니라 여성에게는 변형된 성고문의 자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하며 경찰도 자적으로 고문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자성의 기회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金根祖씨를 고문치사케 한 김만희 경위 高淑鍾 鄭載田 金詩勳씨 등 수많은 선량한 시민을 불구의 몸으로 만든 고문형사들, 전 경찰관 박영씨 등 10여명을 고문치사하여 살인자로 만들었던 金도 김사,尹노파 예금증서를 훔쳐던 河모형사와 감독책임자들이 전부가 석방 출감 보석됐는가 하면 당시 최고 위 치안책임자들은 오히려 진압되고 또 는 영전되던 이러한 책임질 줄 모른다거나, 비인권적이고 국민경시적 인사가

구조가 문제인데다가 1년 내내 실적외주로 과학적인 자백을 받지 아니하고 단속에 공명심과 더불어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경쟁을 시키고 사건을 위에서 쟁기고 이것을 잡아내라고 주치고 이럼으로 인해서 고문이 자연적으로 뒤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許淸一의원 이 사건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자세는 국민을 실망시키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문수사관 2명을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똑같은 옷을 입혀서 10여명을 호송함으로써 관련 수사관의 노출을 보호해 주는 자세는 전혀 경찰의 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내에서 동료를 보호하려는 우정은 그것 좋습니다. 또 해당 수사관의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인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느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호했습니까?
▲文正秀의원 신민당의 文正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군 고문살인사건을

결국 朴鍾哲위원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불문정하고 비상식적인 인사는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무부장관 鄭鎬溶 본인은 평소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천직의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인권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라도 박탈되거나 유린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내무부장관 취임 이후 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고 또 직접 사후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한 자연인으로서의 인성과 공민으로서의 양심을 절고 이번 사건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 변명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굳게 다짐해 왔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그러한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진실은 있는 그대로 국민앞에 소상하게 밝혀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반문명적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 자신은 물론 산하 전경찰관이 대오각성하여 이 땅에서 고문이라는 용어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무부

제도적 살인사건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먼저 자금의 고문이 더욱 후속하고도 무차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금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집권 음모를 위한 수상내각제를 통과시키려는 계산된 정국포석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국구도에 가장 장애세력이 될 수 있는 학생 군로자 민주양심세력을 무력화시킬 필요와 더구나 시간의 촉박하다는 조급함 때문에 고문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족은 물고문용어 고문장비로 판명이났고 소위 침대라든 그 침상판은 전기고문장치로 보는데 답변드립니다. 전내무 장관은 고문장비는 일체 없으며 예산지출항목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고문장비가 설치될 수 있었던 법적인지와 고문장비 항복 및 수량액 수 그리고 80년 이후 고문장비 구입을 위해 사용된 예산액과 임출항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朴鍾哲군의 몇 시간 만에 죽어서 나온 대공본실과 군사조사기관에서 자행한 전 민청련 金權泰의장에 대한 전기고문, 물고문, 서울 노동운동

장관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공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고문받았던 사람들의 진상을 공개하고 소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사자들의 소재를 확인하여 공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를 물으셨읍니다.

본인의 장관으로서 부담한 지 일천하여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고 또한 파악도 못했읍니다. 따라서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路周위원 장관! 내가 장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회의에서도 나가 보고들은 바가 없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 아직 잘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장관은 이 엄청난 사고가 나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회여론이 어떻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신문들을 안 읽니까? 참모들 뭐 해요! 장관한테 일일이 그날그날 신문의 낫으면 이런 신문은 갖다 주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갖다 주어야 해요.

▲내무부장관 鄭鎬鎔 잘 알겠읍니다. 文國鎭교수의 최신법의학에 의하면 질

치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고문장비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또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없읍니다. 병리조직검사에서도 다수의 결핵결절의 인정되니 바 이 병변은 결핵이 완치된 후적이 아니라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활동성 병변으로서 이러한 결핵병변의 야기된 출혈이 기관지를 따라 유입되어 우폐하엽하면역 저류됨으로써 발생된 출혈반이므로 전기고문과 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文正秀위원 장관! 내가 오늘 질문을 한 내용은 경찰은 林鍾哲관리의 사인이 불고문을 할 때 뒤에서 날리고 위의 서머리를 우주의 힘을 때 정부압박질식사라고 사인용 발표했다 말읍니다. 그런데 이제 林鍾哲관리가 고문에 관계된 폐의 출혈을 물었을 때는 전기고문에 의한 폐출혈이 아니고 활동성 폐결핵으로 폐출혈점이 어떤 유조직에 있을러 가지고 거기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다 말어요.

그러면 경찰이 애초에 사인으로 규명하고 발표했던 정부압박질사가 아니라 난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정부압박질사라고 법무부나 폐출혈관계를 가

식사에 이르는 과정은 호흡곤란기·경련기·무호흡기·총말호흡기의 4 단계를 거치면서 약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장기에 압박이 가해지면 산소 차단에 의해 질식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고문사실이 있는지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차군을 조사한 趙漢慶경위 姜鎭圭경사 등에 대한 신문조사 결과와 또 부검감정결과 등등의 의해서 전기고문을 한 사실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읍니다.

다음은 黃路周위원님과 許淸一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신 사항입니다. 林鍾哲군을 가매장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으셨읍니다.

87년 1월 15일 부검을 마친 후 차군의 부모가 불교신자로서 일반적 장례관습인 3일장으로 불교양식에 따라 화장을 하겠다 하고 부모님께서 바랐기 때문에 87년 1월 16일 장례를 치렀을 뿐 黃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증거인멸이나 또는 기타 뜻들을 가지고 화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승무부가 짓눌러서 그렇다, 그러면 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법무부의 말대로 출혈이 전기고문의 아닌 출혈이었다고 하면 경찰이 발표한 사인중에 모부위 질식사,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 모부위 질식사라고 하면 폐출혈은 그것 법무부의 보고가 옳거나 아닙니다.

▲내무부장관 鄭鎬鎔 다음에 고문경찰관을 똑같은 복장으로 이송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반성함이 없이 경찰 신뢰를 얻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지휘관부를 인사조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차안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겠읍니다. 趙漢慶경위는 73년 5월부터 13년 8개월간 그리고 姜鎭圭경사는 79년 8월부터 7년 5개월 동안 대공 수사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대공사범을 검거 조사하였으므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가능한 한 노출이 안 되도록 한 것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안본부장 李永燾 제가 만사를 제치고 청사내의 순시도 한번 못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렇게 이 문제가 의혹에 싸일 줄 알았으면 가매장해서 차후 증거로 사용할 것을 하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한 두 경찰관의 신상을 밝혀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趙漢慶경위는 차안본부 대공수사 5과 소속으로서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255번지가 본적이며 주소는 서울 도봉구 방화동 135-13에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로서 대공분야에 약 1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사항은 처와 1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또한 경사 姜鎭圭는 대공수사 5과 소속으로서 대공업무에 약 7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본적은 경남 의령군이며 주소는 서울 관악구에 있습니다. 가족사항 역시 처와 자식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에 침대를 설치한 것은 전기고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조사실에 침대를 설치한 것은 전기고문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20일이라는 장기간 조사하기 때문에 고문중심의 피의자가 잠잘 수 있는 편의시설로 설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차군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이름을 제가 만나면 피옴고 정중하게 전체 경찰을 대표해서 조의를 표해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거나 또한 이 차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갖지 않은 계기로 받아들여 이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돌아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잘못은 잘못대로 질책을 강하게 해주시고 일방 면면에 절대 다수의 성실한 그리고 가난속에서 도 무뎠다 24시간 잠 못자고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그러한 경찰관들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했을 사랑과 지도를 가지고 유성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林鍾哲군을 연행한 이유는 86년 10월 31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 데모시 인원동원책으로서 데모 인원을 동원해서 시위에 가담한 집시범위반혐의와 국가보안법위반피의자로 수배중에 있는 林鍾哲을 은닉하고 도주를 방조한 그러한 범인이다. 및 도주방조혐의로서

연행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朴鍾哲 군과 朴鍾雲(화상)과의 관계는 86년 11월 24일 朴鍾哲군은 朴鍾雲을 자기 하숙방에 1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써 행정지도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87년 1월 8일 또한 도의를 하면서 전전하는데 쓰라린 명목으로 1만원을 朴鍾雲에게 수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12월 1일 구속송치한 서울대 민투위원장 남택범, 그리고 12월 23일 구속송치한 김태호의 진술로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그 1만원이 무엇이 오늘날의 돈이나? 이러한 어디에서 들은 기적이 남니다마

1만원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 1김으로 들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의 朴鍾哲에 대해서는 참고인도 되지만 여러가지 방조 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혐의를 받아서 임의동행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東岡위원장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87년 1월 14일 중앙대학병원의 응급실 장에게 대공수사본부에서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빨리 의뢰기구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해서 10분만에 증대 吳演相의 사가 11시 40분에 대공수사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吳의사가 진단한 결과 이미 고 하근은 사망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상의는 벗겨졌고 하의는 잠옷 비슷한 흔해 이야기하는 고문부이라는 웃음 갈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서너평되는 수사관실에는 목욕탕에서 남은 물이 흘러 있었고 또 흔해 얘기하는 나무침대 그것을 고문을 당한 사람은 침상대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근은 눕혀져 있었고 또 하의를 벗기니까 풍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더 살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공수사반 간부 및 7, 8명의 대단히 중요한 사람 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해도 반 오지로 중앙대학부속병원으로 사체를 12시 50분에 이송을 했습니다. 중앙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죽은 환자기 때문에 치료도 하지 않았읍니다.

동일 13시 50분에 동문실무원 3명과 의사 한명이 사체를 경찰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15일 19시경 부검자 한양 대학병원으로 다시 또 사체를 이송했습니다. 15일 21시 5분에 한양대학병원

에서 검사 安南守 임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黃迪賢 의사의 길도와 한양대학 안직의사 朴東皓교수 이 부분은 마취 의사이고 이제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해부를 한번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의 임회하에 또 가족대표로서는 朴월길고 朴근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임회하에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 후 朴鍾哲군의 사체는 다시 대공본실요원들에 의하여 15일 23시 50분 경찰병원으로 재안치되었습니다. 16일 7시경 대공수사본부 禹경성이 경찰병원장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사체를 화장할 것이니까 출고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8시경에 대공수사요원 9명이 가족들과 같이 사체를 출고하여 9시경 벽계화장장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체를 부검하고 난 이후 黃 박사는 안검사에게 의상으로 봐서 분명히 수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병원은 운영을 하든 그 책임을 절대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 고문의 의한 살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이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폐출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즉각 범인도 체포하기도 전인 그날 아침에 시체를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증거인멸을 위하여 화장장에 화장시킨 것을 방조했습니다.

또 저희들 조사단이 경찰병원에 갔을 때 분명하게 원상하고 거기에 있는 간부들은 대공수사본부에서 보내는 시체를 신원을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공수사본부에서는 수시로

많은 시체를 경찰병원에 보낸다든 말입니까? 또 대공수사본부 禹경성이 아침 7시에 경찰병원장의 집으로 전화를 해 갖고 시체를 출고하라 하면 출고하고 또 왜 경찰병원에 죽은 시체를 가져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분명히 중앙대학병원이나 한양대학병원은 보안유지가 되지 않고 경찰병원이라야만 보안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라도 링게트라는 의약품은 10병을 사 갖고 들어가더라도 입고증이 있고 출고증이 있는데 치안본부 대공수사본부가 어떤 기관인지 몰라도 전화 통화에 의해 서 시체가 나갔다 들어와도 신원도 알

수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병원은 운영을 하든 그 책임을 절대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 켈 (22층)

연회장

BANQUET

- 회갑연
- 약혼식
- 생일파티

•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비용으로 격조높은 모임을 원하시면 지금 곧 코리아나 호텔로 연락 주십시오.

예약 : 730-9017 (직)
730-9911 (교) 825



코리아나호텔

대공본야의 내부시설의 공개는 한 바가 없읍니다.

이것은 추후 검토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저희 경찰에 고문기구나 시설은 일체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이러한 것이 만약에 아직까지 있다면 즉각 폐기처분하겠습니다.

차근 치사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는 질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명을 예시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데 진상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공호흡 등 소생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인공 중앙대학부속 용산 병원의 사를 불러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애원하였던 일련의 사실 등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盧承煥위원 鄭장관! 하나만 물읍시다. 우리 崔洛道위원이 질의하신 金大中씨 연금관계에 관해서 그 답이 법답 다시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거에 있읍니까?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조문을 조항을 대주세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정화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承煥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당법 제42조의 2 정당관련금지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조항입니다.

▲盧承煥위원 그것은 일전에 지금은 치안본부장이 되셨지만 주차안본부장이 시경국장으로서 사실상 한달이면 스무날씩 金大中씨에 대해서 연금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鄭장관이 대답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론을 전개하는데 정치를 못한다는 조문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내무부장관 鄭鎬溶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대답을 못했읍니다마는 조항을 확실하 찾아서 제가 규명을 하겠읍니다.

▲安東善위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일반 어느 법률에도 가택연금이라는 법의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경찰 무슨 집행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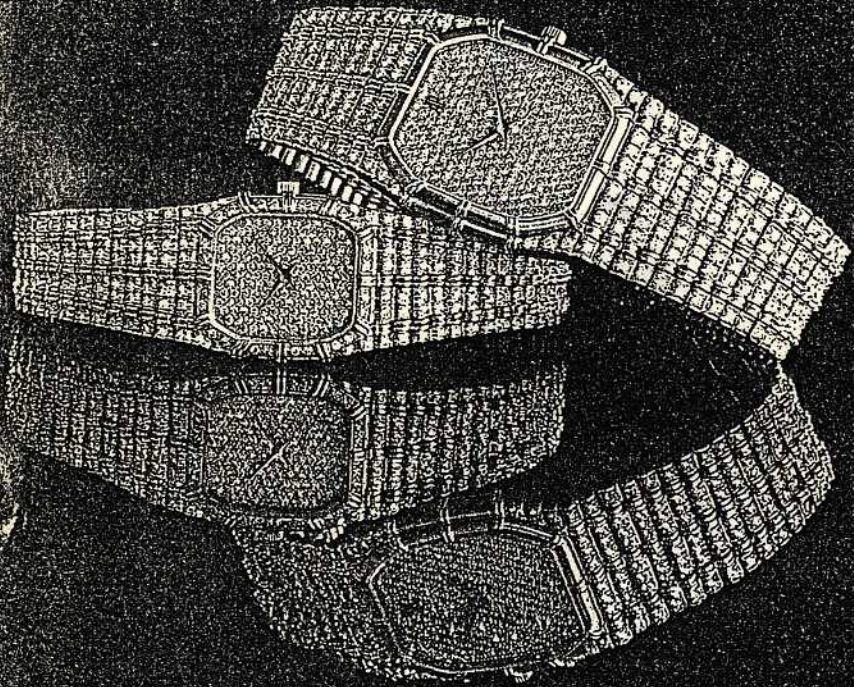
金大中씨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 말이에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다음 기보(기보)에 이고 문중단 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것은 내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본건에 대하여는 내부부에서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당부소관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洛道위원 형법 163조에 원래 번사체는 그 자리에 놔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검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번사체를 이미 죽었다고 사망확인서를 확인의사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갔다 이거예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그 과정은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최중양병원에 옮긴 것은 어떻게 병원에 가 보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崔洛道위원 용산병원에 뭐 예수가 있읍니까? 또 사체처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체처리의 비용이 얼마나 절감됐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사체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최신 모델인 "뱀부" (Bamboo)
위 모델은 황금시계로서 자판과 시계줄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음.

**보통시계가 아닙니다.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보석 공예품입니다.**

전통과 멋이 담긴 불후의 명품,
오디마피게(Audemars Piguet)!
고집스런 장인정신이 창조해낸
예술적 향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분은 많아요
갖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Audemars Piguet
SWITZERLAND
la plus prestigieuse des signatures